



##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혜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소수자(LGB)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태도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을 중심으로-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고현

성소수자(LGB)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태도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을 중심으로-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고현


# 인 준 서

고 현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이 정 윤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김 명 선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박 혜 경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LGB)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만 19세에서 39세 비성소수자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직접 접촉 경험 문항들, 간접 접촉 경험 문항들,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LGB)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양성애자보다 동성애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준사회적 상호작용,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인 세속적 거부대 지지,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인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이 성소수자(LGB)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LGB) 등장인물을 사회적으로 매력적이고 사실적으로 인지할수록,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가 없다고 믿을수록, 성적 지향이 어린 시절에 결정되며 고정되는 범주라고 믿을수록, 동성애가 역사·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을수록 성소수자(LGB)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LGB)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비성소수자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같은 변인과 성소수자(LGB)

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LGB)에 대한 태도,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II. 이론적 배경 .....	8
1. 성소수자 .....	8
1) 성소수자의 개념 .....	8
2)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들 중 성소수자의 특성 관련 변인들 .....	9
3)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들 중 비성소수자의 특성 관 련 변인들 .....	11
2. 접촉 경험 .....	15
1)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	15
2) 성소수자와의 간접 접촉 .....	17
3) 성소수자 접촉 경험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	18
3. 종교적 근본주의 .....	19
1) 종교적 근본주의의 개념 .....	19
2)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 .....	21
4. 본질주의적 믿음 .....	23
1) 본질주의적 믿음의 개념 .....	23
2)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	25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	28
IV. 연구 방법 .....	29
1. 연구 참가자 .....	29
2. 측정 도구 .....	30
1)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	30
(1)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	30
(2)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	31
2)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 .....	32
(1) 직접 접촉 경험 문항들 .....	32
(2) 간접 접촉 경험 문항들 .....	33
(3)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	34
(4)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	35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들 .....	36
3. 연구 절차 .....	37
4. 분석 방법 .....	37
V. 결과 .....	39
1.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	39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	41
3.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성소수자의 태도 .....	45
4.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간 관계 .....	45
5.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 간 관계 .....	49

VI. 논의 .....	57
1. 주요 결과 요약 .....	57
2.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	59
3.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6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9
표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	42
표 3.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	44
표 4.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성소수자의 태도에 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45
표 5.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47
표 6. 직접 접촉 경험을 보고한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	49
표 7.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51
표 8. 게이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52
표 9.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54
표 10.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5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성소수자는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나 존재해 왔지만, 성소수자가 존재해 왔던 역사와는 별개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부자연스러운 존재 혹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진이, 2017).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성소수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치는 찾기 어려우나 대략 100만 명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10% 정도다(윤가현, 1997; 강병철, 2011에서 재인용). 하지만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의 분위기로 인하여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성소수자의 수는 보고된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동성애 혐오(homophobia)는 동성애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가족, 친구, 사회의 반응을 의미한다(Weinberg, 1972). 동성애 혐오는 비동성애자에게 동성애자와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며, 동성애자 당사자에게는 자기혐오를 만들어낸다. 즉,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사회적 태도를 내면화함으로써 동성애자는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Alexander, 1986; Beane, 1981; Cabaj, 1988). 동성애 혐오와 더불어 동성애자는 이성애 중심주의(heterosexism)를 경험하는데, 이는 이성애만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신성시하며, 이를 통해 동성애자의 경험을 열등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평가 절하하는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Iasenza, 1989). 이성애 중심주의는 동성애자의 삶의 방식과 선택에 대해 공감하거나 용인하지 못하게 만든다. 동성애 혐오와 이성애 중심주의는 사회의 전반적인 관습과 제도,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 성소수자가 구조적인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하여 성소수자 개인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경희, 2018; Boyer & Lorenz, 2020).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증대 및 수용,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 및 정비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키쉬겔개이, 2018). 이러한 법률의 예로는 동성혼 법제화 혹은 동반 관계를 인정하는 법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들 수 있다. 동성혼의 경우, 20년 전에는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전무하였지만,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7개 대륙 30개국에서 동성 커플은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Freedom to Marry, 2021)<sup>1)</sup>. 따라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6%(약 12억 명)는 성별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국가에 살고 있다. 이외에도 11개국에는 동성 간 시민 결합, 동반자관계 인정 등과 같은 일부 보호책을 가지고 있다<sup>2)</sup>. 차별 금지법의 경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의 34개 회원국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BBC, 2020). 미국의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평등에 관한 대표적 입법례이다. 이외에도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General Equal Treatment Act), 호주의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Laws), 캐나다의 인권법(Human Rights Act) 등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 이러한 성소수자와 관련된 법률의 등장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변화

---

1) 법적으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몰타,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2)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책을 가진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안도라, 이탈리아, 체코, 칠레,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하고 있다는 증거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후지사키, 강신재, 진영재, 2019). 예를 들어, 2015년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 커플의 동반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 일본 삿포로 지방 법원에서는 동성혼이 불가능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동성혼 법제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2021). 2017년 대만은 동성혼을 법제화하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제 사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정애경, 윤은희, 2020). 또한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 세력과 종교 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 없이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어려우므로, 법과 제도의 마련은 향후 한국 사회와 성소수자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키쉬겔개이, 2018). 따라서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이 아닌, 사회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성소수자의 태도나 신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비성소수자인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정애경, 윤은희,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성소수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

가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비성소수자가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사회적 차원의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선영, 2020).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에서 성소수자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제안하여, 한국 사회에 다양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보편적인 가치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정숙, 전유림, 김명찬, 2021)

## 2. 연구의 목적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소수자 연구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 연구는 비교적 적게 수행되었다(남궁미, 박정은,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비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성소수자(LGB)<sup>3)</sup>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범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탐색하였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사회적으로 다른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Herek, 2000a; Kaiser Family Foundation, 2001), 이성애자가 이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 또한 상

---

3)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의 차원만을 고려하므로 ‘성소수자’ 옆에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칭하는 ‘(LGB)’를 병기하여 ‘성소수자(LGB)’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소수자(LGB)는 관행적으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칭하는 용어로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였다(e.g., 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백인규, 고영건, 문기범, 2019; 이성원, 연구진, 2020). 단, 본 연구에서는 본문의 가독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소수자’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는 성소수자(LGB)를 의미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하다(Eliason, 1997; Herek, 2002). 또한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개인의 성별에 따라서도 이성애자는 다른 태도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게이보다 레즈비언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며(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Eliason, 1997; Herek, 2000b, 2002; LaMar & Kite, 1998; Proulx, 1997; Span & Vidal, 2003; Whitley, 2001), 양성애자 남성보다 양성애자 여성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Helms & Waters, 2016; Herek, 2002; Mohr & Rochlen, 1999; Steffens & Wagner, 2004).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동성애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탐색하였으며(강현선, 김현주, 2016; 김은하, 신윤정, 2016; 서영석, 차주환, 이정림, 2006;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이봉재, 2006; 장인실, 2017; 전민경, 전재희, 황선아, 2017; 정애경, 윤은희, 2020; 조령함, 이윤, 이혜은, 2021; 최경화, 신형진, 2019; 후지사키, 강신재, 진영재, 2019), 양성애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동성애자 개인의 성별에 따른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도 일부에 불과하다(서영석, 차주환, 이정림, 2006;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들에 대해 비성소수자가 다른 태도를 보고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Worthen(2013)은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LGBT)의 성적 지향과 성별의 교차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술하며,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태도에 대한 예측 변인 중 성소수자(LGBT) 개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 가지 변인들(접촉 이론, 성별에 대한 믿음, 종교성, 성적 지향의 근원에 대한 믿음)을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밝혔으므로(김은하, 신윤정, 2016; 서영석, 차주환, 이정림, 2006; 장인실, 2017),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믿음을 제외하고 접촉 이론, 종교성, 성적 지향의 근원에 대한 믿음의 세 가지 예측 변인을 활용하여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측 변인을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으로 설정하고, 해당 변인들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과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설명하는가를 확인하였다.

Allport(1954)는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을 제안하며, 외집단과의 접촉 경험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소수자는 비가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울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직접 접촉의 기회가 없을 때는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간접 접촉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Fujioka, 1999; Neuendorf, Armstrong, & Brentar, 1992; Tan, Fujioka, & Lucht, 1997)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직접 접촉과 동시에 간접 접촉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신의 권위를 중시하고, 고정된 교리를 지키고자 하며,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개인의 지향을 의미한다(Liht et al., 2011). 기존의 연구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전민경, 전재희, 황선아, 2017; Adamczyk & Pitt, 2009; Finlay & Walther, 2003; Fisher et al., 1994; Herek & Glunt, 1993; Olsen et al., 2006; Rich, 2017; Sherkat et al., 2011). 하지만 개신교를 믿는 이들이더라도 종교적 근본주의 성향이 낮은 이들은 성소수자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급진적인 개신교도들은 성경문자주의에 반대하며, 동성애는 죄라는 기

존의 성경에 대한 해석에 반대하고 있다(박경미, 2020). 또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므로, 이외의 종교를 가진 이들의 종교적 근본주의 수준에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를 믿는 이들의 종교적 근본주의 수준에 따라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essentialist beliefs)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선천적이고 역사·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는 믿음이다(Haslam & Levy, 2006). Haslam과 Levy(2006)의 연구에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며, 다차원 척도로 구성되어 하위 요인의 유형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연구는 성적 지향이 선천적인지, 환경적인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본질주의적 믿음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강현선, 김현주, 2016; 이봉재, 2006; 전민경, 전재희, 황선아, 2017).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를 사용하여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범주로 구분하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고 밝혀진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소수자

#### 1) 성소수자의 개념

성소수자(sexual minority)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혹은 성적 관행이 주변 사회와 다른 집단을 의미한다(Sullivan, 2013).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호림, 2015).

성적 지향이란 한 개인이 어떤 성별에 성적으로, 혹은 낭만적으로 끌림을 느끼는가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12). 성적 지향은 개인이 끌림을 느끼는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신과 같은 성별에 끌림을 경험하는 동성애자(gay men or lesbians), 자신과 다른 성별에 끌림을 경험하는 이성애자(heterosexuals), 자신과 같은 성별과 다른 성별 모두에 끌림을 경험하는 양성애자(bisexuals)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적 혹은 낭만적 끌림을 경험하지 않는 무성애자(asexuals)와, 상대의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을 구분하지 않고 끌림을 경험하는 범성애자(pansexuals)가 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스스로의 성별을 의미한다. 이는 신념, 제도, 역할 등의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적인 개념으로, 신체적·생물학적이며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성(sex)과는 구분된다(Anders, 2015: 박도담,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성별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을 시스젠더(cisgender),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젠더(transgender)로 구분한다. 이외에도 성별 정체성이 성별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젠더퀴어(gender queer)라고 한다. 이들은 자신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성별 사이를 이동하거나, 자신을 제3의 성별로 정의하기도 한다(APA, 2015).

최근에는 성소수자를 지칭하기 위해서 LGBTIAQ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각각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무성애자(Asexual), 퀘스처닝(Questioning)을 의미한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의 스펙트럼과 성별 정체성 스펙트럼 내에서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양한 성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3). 성소수자라는 큰 범주 내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는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를 수 있으며(이솔희, 2019), 이들에 대한 비성소수자들의 태도도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동성애자, 그리고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할 수 있는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들을 성소수자로 통칭하고자 한다.

## 2)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들 중 성소수자의 특성 관련 변인들

태도란 부정적인 것부터 긍정적인 것까지의 하나의 차원에서 사물, 사람, 집단, 문제 또는 개념에 대한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APA, 2007). Cantril과 Allport(1935)는 태도를 정신적·신경적 준비 상태로서,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며, 서로 관계된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에 직접적 혹은 역동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에서 긍정까지의 차원을 반영하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Smith(1971)가 동성애

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를 측정하는 ‘동성애 공포증 척도(homophobia scale)’를 개발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Herek(1988)은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동기를 통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를 별도로 측정하는 척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s Lesbians and Gays Scale; ATLGS)’를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를 각각 측정하는 척도들이 지속해서 개발되었다(MacDonald et al., 1973; Raja & Stokes, 1998). 이러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레즈비언보다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가 부정적임을 보여주었다(e.g., Herek, 2000b, 2002; LaMar & Kite, 1998; Proulx, 1997; Span & Vidal, 2003; Whitley, 2001).

Eliason(1997)은 양성애자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기술한 23개의 문항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항목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Israel & Mohr, 2004). 연구 결과, 이성애자는 네 집단 중 양성애자 남성을 가장 수용할 수 없으며, 양성애자 여성이 가장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Eliason, 1997). 또한 Herek(2002)은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보다 양성애자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가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동성애 공포증과 양성애 공포증(bi-phobia)이 별개의 현상이며, 따라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성애자 여성과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에게 별도의 척도를 사용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Mohr과 Rochlen(1999)은 양성애자 여성과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별도로 평가하는 ‘양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Scale; ARBS)' 를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양성애자 여성보다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e.g., Helms & Waters, 2016; Herek, 2002; Mohr & Rochlen, 1999; Steffens & Wagner, 2004).

### 3)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들 중 비성소수자의 특성 관련 변인들

선행 연구에서 비성소수자들의 여러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비성소수자의 성별, 연령, 종교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혼인 상태 등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혼인한 이들일수록, 성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비성소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을 아래에 개관한다.

첫째, 성별은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탐구되었으며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e.g., 서영석, 차주환, 이정림, 2006;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Adamczyk & Pitt, 2009; Brewer, 2003; Brown & Henriquez, 2008; Brumbaugh et al., 2008; Davies, 2004; Herek, 1988; LaMar & Kite, 1998; Lottes & Kuriloff, 1992; Olson, Cadge, & Harrison, 2006; Poteat & Anderson, 2012). Herek(1986)은 남성들 사이에서 '남자는 강인해야 하고, 친밀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 라는 남성성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Kite와 Whitley(1998)는 이러한 성별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e.g., 후지사키, 강신재, 진영재, 2019; Baunach, 2012; Brumbaugh et al., 2008; Herek, 1984, 2002; Olson, Cadge, & Harrison, 2006; Rich, 2017).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회적 의제와 마찬가지로 성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김장생, 2020). 전통적 세계관을 고수하는 이들은 타인의 성에 대해 전통적인 역할을 일관되게 요구하므로, 동성애를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났다고 간주하여 혐오할 수 있다(Sherkat et al., 2011; Whitley & Lee, 2000; Wyatt et al., 2008; 김장생 2020에서 재인용). 또한 세대 간 다른 경험과 규범으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연령차가 나타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증가하는 시대에 성장하였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페미니즘의 부상과 동성애·양성애 운동 이전의 문화적 규범과 일치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Herek, 2002).

셋째, 종교 유무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일관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았다(e.g., 박선진, 2010; 이희정, 2019; 정은하, 2020; Adamczyk & Pitt, 2009; Finlay & Walther, 2003; Sherkat et al., 2011). 대부분의 종교는 동성애와 관련된 행동을 ‘비정상적’이며 ‘부도덕한’ 것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인해 적극적인 종교 참여, 종교 문학에 대한 정기적인 노출, 그리고 종교를 가진 친구들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반동성애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Olson et al., 2006; Sherkat &

Ellison, 1997; Scheitle & Adamczyk, 2009).

넷째,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로 사용되는 소득과 교육 수준은 선행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을 보였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e.g., 후지사키, 강신재, 진영재, 2019; Bobo & Licari, 1989; Brumbaugh et al., 2008; Loftus, 2001; Ohlander, Batalova, & Treaset, 2005).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은 자유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되므로,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소수자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유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Andersen & Fetner, 2008).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g., Adamczyk & Pitt, 2009; Bettinsoli, Suppes, & Napier, 2020; Brumbaugh et al., 2008; Herek & Capitanio, 1995; Loftus, 2001; Ohlander, Batalova, & Treaset, 2005; Olson, Cadge, & Harrison, 2006; Treas, 2002). 교육은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도록 가르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도를 높일 수 있고(Gaasholt & Togeby, 1995), 더 큰 인지적 정교함과 복잡한 추론을 촉진하여 새로운 신념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한다(Ohlander, Batalova, & Treaset, 2005).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보다 높은 관용을 보일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교육 수준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 중 하나로,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개인은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므로 부모의 가치관 및 교육 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관련을 나타내는가를 추가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다섯째, 혼인한 이들일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e.g., Adamczyk & Pitt, 2009; Herek & Capitanio, 1995). 결혼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단기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태도에 반대하며, 동성애는 단기적인 사랑을 나누려는 성향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같은 장기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들은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Pinsof & Haselton, 2017; 김장생, 2020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전술한 비성소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변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들의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고,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들의 태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e.g., Arli, Badejo, & Sutanto, 2020; Basow & Johnson, 2000; Baunach et al., 2009; Birchmore & Kettrey, 2021; Hunsberger, 1996; Finlay & Walther, 2003; Haslam & Levy, 2006; Hegarty & Pratto, 2001; Herek & Capitanio, 1996; Herek & Glunt, 1993; Hinrichs & Rosenberg, 2002; Hleton & Szymanski, 2014; Hunsberger, Owusu, & Duck, 1999; Jonathan, 2008; Lazar & Hammer, 2018; Schiappa, Gregg, & Hewes, 2005; Schiappa, Gregg, & Hewes, 2006),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거나(강현선, 김현주, 2016; 김철권, 2013; 류승아, 2017; 이봉재, 2006; 전민경, 전재희, 황선아, 2017; 조령함, 이윤, 이혜은, 2021) 혹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를 검증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러

한 변인들이 국내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접촉 경험

### 1)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지난 수십 년 동안 접촉을 통하여 고정관념, 사회적 범주화 및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과 모델이 제안되었다(e.g., Brewer & Brown, 1998; Hewstone, Rubin, & Willis, 2002). 이 가운데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Allport(1954)의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이다. 집단 간 접촉 이론에 따르면, 편견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집단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를 한 결과이므로, 해당 집단과 접촉하면서 집단 범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때 편견은 줄어들 수 있다.

Allport(1954)는 집단 간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네 가지 최적 조건이 있다고 보았다. 접촉하는 집단 간 지위가 동등해야 하며, 공동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부 정책, 법률, 사회적 관습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최적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편견 감소의 효과가 가장 크지만,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도 접촉 자체는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igrew & Tropp, 2006).

Allport(1954)의 집단 간 접촉 이론은 접촉이 왜 그리고 어떻게 편견을 감소시키는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Pettigrew(1998)는 집단 간 접촉을 통해서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편견이 감소한다고 제안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외집단에 대한 학습’으로, 접촉을 통해서 외집단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관점을 바로 잡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동 변화’ 로, 새로운 접촉 상황에서는 외집단을 수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기대를 하게 되며, 기존의 편견과 새로운 기대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수정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정서적 유대감 형성’ 은 접촉을 통해 외집단 구성원에게 공감하고 우정을 경험하면서 외집단에 대한 불안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 ‘내집단의 재평가’ 는 외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내집단의 규범과 관습만이 사회적 세계를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집단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Allport(1954)는 집단 간 접촉 이론에서 접촉의 양과 접촉의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접촉의 양은 접촉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접촉 빈도를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으며, 접촉의 질은 외집단과의 접촉의 질을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거나 얼마나 즐거웠는지 등의 문항 세트를 통해 측정하였다. 집단 간 접촉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접촉의 양과 접촉의 질은 일반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었다(Islam & Hewstone, 1993; Prestwich, Kenworthy, Wilson, & Kwan-Tat, 2008). 단순히 접촉의 양이 많은 것으로도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존재하며(e.g., Eddy, 1986; Revenson, 1989), 반대로 접촉의 양보다 접촉의 질이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었다(Caspi, 1984; Cook, 1985; Deforges et al., 1991; Sigelman & Welch, 1993; Wittig & Grant-Thompson, 1998). 추가로 Pettigrew(1997, 1998)는 집단 구성원 간의 단순한 접촉 경험이 아닌 구성원 간의 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집단 간 우정은 일회성의 접촉과 다르게 장기간 접촉을 포함하며, 따라서 Allport의 최적 접촉

조건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 2) 성소수자와의 간접 접촉

최근 연구는 직접 접촉에 대한 대안으로 간접 접촉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Harwood, 2017). 간접 접촉이란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함께 존재하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방식의 접촉을 의미한다(Vezzali et al., 2014). 간접 접촉은 대리 접촉(vicarious contact), 확장 접촉(extended contact), 매개 접촉(mediated contact), 상상 접촉(imagined contact)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간접 접촉의 유형 중에서 매개 접촉과 매개 접촉의 일종인 준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매개 접촉은 접촉 과정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매개된 경로를 통해 발생하며, 매개 접촉의 예로는 전화 통화, 전자 메일, 텔레비전 등과 같이 매체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매개 접촉의 하위 개념인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외집단 구성원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과 같이, 매개 채널을 통해 외집단 구성원을 관찰하는 것이다 (Schiappa, Gregg, & Hewes, 2006). 본 연구에서 매개 접촉과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 이유는 국내에서 미디어를 통한 성소수자 간접 접촉 경험을 살펴본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e.g., 김철권, 2013; 류승아, 2017; 조령함, 이윤, 이혜은, 2021), 단일 문항을 통해 간접 접촉을 측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접 접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대인관계 및 미디어를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Hotyon과 Wohl(1956)은 미디어를 통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등장인물과 면대면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듯이, 미디어 시청자는 미디어 인물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Conway & Rubin, 1991). 사람들은 미디어 속 가상 인물과 실제 세계에서 알고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미디어를 시청하는 동안 이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들이 집단 간 상호작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면, 집단 간 접촉의 사회적 순기능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단 간 직접 접촉의 기회가 제한적일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e.g., Neuendorf, Armstrong, & Brentar, 1992; Fujioka, 1999; Tan, Fujioka, & Lucht, 1997).

매개 접촉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디어 시청 시간과 시청하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인지된 사실성과 사회적 매력이라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Schiappa, Allen, & Gregg, 2007). 구체적으로 인지된 사실성은 미디어 속 인물이 해당 집단의 현실적인 구성원을 나타낸다고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 매력은 미디어 속 인물을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3) 성소수자 접촉 경험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

집단 간 접촉의 효과는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Basow & Johnson, 2000; Finlay & Walther, 2003; Herek & Capitanio, 1996; Herek & Glunt, 1993; Hinrichs & Rosenberg, 2002)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Claman, 2008; Hill & Willoughby, 2005; Woodford et al., 2012에서 재인용)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확인되어 왔다. Herek과 Glunt(1993)은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비해서 집단 간 접촉이 게이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레즈비언 혹은 게이 친구가 있으면 동성애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래 동성애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 하였다(Heinze & Horn, 2009). 같은 맥락에서 성소수자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성소수자 친구를 가진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Sakalh & Ugurlu, 2002).

한편, 성소수자 개인을 접촉한 경험이 있거나, 성소수자와 동일한 집단에 속해 본 경험과 같은 직접 접촉 경험 외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성소수자를 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Baunach et al., 2009; Hleton & Szymanski, 2014). 일례로,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Will & Grace’ 를 시청한 빈도가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낮게 나타났다(Schiappa, Gregg, & Hewes, 2006). 또한, 게이가 등장하는 드라마인 ‘Six Feet Under’ 와 게이가 출연하는 예능인 ‘Queer Eye’ 를 시청하였을 때도 낮은 수준의 편견이 보고되었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편견은 묘사된 등장인물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을 때도 관찰되었다. 미국의 텔레비전이나 매체에서 게이 혹은 레즈비언 등장인물들은 다른 등장인물들보다 더 자주 사망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등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 여성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콘텐츠를 보여준 실험 연구에서도 해당 등장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관찰되었다(Birchmore & Kettrey, 2021).

### 3. 종교적 근본주의

#### 1) 종교적 근본주의의 개념

지난 2세기 동안 포스트모던 사고방식이 부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교적 전통 사이에서 종교 근본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가 성장하고 있다(Marty & Appleby, 1995).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심지어 힌두교에서도 과학적 물질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힘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종교적 믿음의 확산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성·자율성·다양성·대중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해 방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종교를 믿는 것은 어려워진 것처럼 보인다. 종교 근본주의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과학적 주장과 현대의 문화적 특징인 상대적 도덕 신념 체계에서 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지키고자 하는 반응을 의미한다(Liht et al., 2011). 사회과학에서 종교적 근본주의는 종교 공동체와 이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많은 학자에 의해 독단적 믿음이나 경전을 문자 그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Altemeyer & Hunsberger, 1992; Williamson & Ahmad, 2007). 즉, 종교 내의 경전 해석을 고려할 때 근본주의는 하나의 본문이 절대적으로 권위적이며 다른 모든 지식의 최종 중재자로 판단된다는 믿음으로 묘사된다(Wibisono, Louis, & Jetten, 2019). Altemeyer와 Hunsberge(1992)는 개인의 종교적 근본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religious fundamentalism scale)를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종교적 근본주의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졌다(e.g., Arli, Badejo, & Sutanto, 2020; Hunsberger, 1996; Hunsberger, Owusu, & Duck, 1999; Jonathan, 2008; Lazar & Hammer, 2018).

하지만 Liht와 동료들(2011)은 Altemeyer와 Hunsberge(1992)의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다른 종교를 믿는 표본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예: 사탄, 어둠의 왕자)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타당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교적 근본주의를 단일 요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종교적 근본주의가 다차원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Liht와 동료들(2011)은 Altemeyer와 Hunsberge(1992)의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Fundamentalism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또한 척도의 내용에 기반하여 종교적 근본주의를 ‘도덕적 권위를 신에게 위치시키며, 맥락에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을 고수하고, 세속적인 경험보다는 종교적 경험을 중시하는 개인의 지향’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Liht와 동료들(2011)이 개발한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Fundamentalism Inventory)가 Altemeyer와 Hunsberge(1992)의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religious fundamentalism scale)와 동일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 2)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

Liht와 동료들(2011)의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Fundamentalism Inventory)는 외부 대 내부 권한(external versus internal authority), 고정 대 가변 종교(fixed versus malleable religion), 세속적 거부 대 지지(worldly rejection versus worldly affirmation)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요인은 하나의 연속체로 이루어진다.

먼저, 외부 대 내부 권한을 살펴보면, 외부 권한을 나타내는 극단은 자신

의 행동이 도덕적이고 올바르기 위해서는 신의 권위에 기초해야 하며, 종교는 개인의 삶에 불가항력으로 존재하는 힘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권한을 나타내는 반대편 극단은 도덕성의 범위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기인해야 하며, 종교는 개인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을 가진 힘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 대 가변 종교를 살펴보면, 고정 종교를 나타내는 극단은 종교적 전통이 역사·문화적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역사·문화적 맥락은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관계없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가변 종교를 나타내는 반대편 극단은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적 전통은 특정한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며, 종교적 전통은 과거의 종교 관습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도록 하는 역사·문화적 맥락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속적 거부 대 지지를 살펴보면, 세속적 거부를 나타내는 극단은 속세를 초월한 종교적 존재보다 자연 세계, 과학, 세속적 문화,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는 잠시 동안 경험되므로 세속적인 것을 멀리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세속적 지지를 나타내는 반대편 극단은 종교적 존재보다 세속적인 것을 중시하는 믿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는 대부분 기독교가 지배적인 서구 문화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Altemeyer와 Hunsberge(1992)의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가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Liht와 연구자들(2011)의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 Liht와 연구자들(2011)의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종교적 근본주의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

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4. 본질주의적 믿음

##### 1) 본질주의적 믿음의 개념

본질주의는 인간 속성과 사회적 범주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 차이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가정을 반영한다(Haslam, Bastian, Bain, & Kashima, 2006). 구체적으로 사회적 범주는 깊이 있고 관찰할 수 없는 현실이며, 범주 구성원의 내재된 특성(예. 기질)을 이끌어낸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본질은 자연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바꿀 수 없는 불변적인 특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질주의적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존재론일 뿐 아니라, 집단 인식과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론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본질주의적 믿음과 부정적 태도에 대한 이론을 제안하였다. Allport(1954)는 본질주의적 믿음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Rothbart와 Taylor(1992)는 본질주의적 사고가 집단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만든다고 주장하였고, Leyens와 동료들(2000)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는 외집단을 하등 인간화(infra-humanized)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는 본질주의적 믿음이 고정관념 및 편견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e.g., Haslam et al., 2000; Karafantis & Levy, 2004; Levy & Dweck, 1999; Levy, Stroessner, & Dweck, 1998; Martin & Parker, 1995).

기존의 본질주의적 믿음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로, ‘성적 지향’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되었다.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의 차원 중 하나인 통제 가능성을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적용해 살펴볼 때, 성적 지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타고 태어나며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면 동성애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Falomir-Pichastor & Mugny, 2009; Weiner, 1995; Whitley, 1990). 또한 Wilcox와 Norrander(2002)는 미국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성적 지향이 출생 시 고정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977년에는 13%이었지만 2001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성적 지향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확산되면서 미국인들이 동성애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며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g., Altemeyer, 2001; Brooker, 2002; Ernulf et al., 1989; Hegarty & Pratto, 2001; Jayaratne et al., 2006; Matchinsky & Iverson, 1996; Tygart, 1999).

성적 지향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Hegarty와 Pratto(2001)는 성적 지향 믿음 척도(sexual orientation belief items)를 개발하였으며, 불변성(immutability)과 근본성(immutability)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을 발견하였다. 불변성은 성적 지향을 일생에 걸쳐 고정된 것으로 보는 믿음이며, 근본성은 사람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집단 구성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가 있다는 믿음이다. 연구 결과, 불변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부적 상관을, 근본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성적 상관을 보였다(Hegarty & Pratto, 2001). 불변성과 태도 사이의 관계는 성적 지향을 변하지 않는 통제 불가능한 정체성이라고 믿을 때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귀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다(Weiner et al., 1988; Whitley, 1990). 또한 근본성과 태도 사이의 관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에 유리하게 차별하기 위해 집단을 구별하도록 동기화된다는 사회 정체성 이론을 통해 해석 가능하다(Tajfel & Turner, 1986).

Hegarty와 Pratto(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Haslam과 동료들(2002)의 연구는 반동성에 태도와 관련된 성적 지향에 대한 믿음의 두 가지 하위 요인, 자연성(natural kind)와 실체성(entitativity)을 확인하였다. 불변성과 자연성은 성적 지향의 고정성과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하며, 근본성과 실체성은 성적 지향에 따른 유사성과 정보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하지만 Haslam과 동료들(2002)의 자연성은 불변성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성애가 역사적으로 지속해서 존재해왔다’는 개념을 포함하며, 성적 지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근본성의 일부 개념까지 포괄하였기 때문에 Haslam과 Levy(2006)는 두 연구에서 발견된 하위 요인들 간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각 하위 요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시도하였고,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대조되게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cale)를 개발하였다.

## 2)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Haslam과 Levy(2006)는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cale)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척도는 분별성(discreteness), 불변성(immutability) 및 보편성(universality)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분별성은 사람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두 집단 구성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가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불변성은 성적 지향이 생물학에 기반하고 어린 시절에 결정되어 어른이 되어서는 고정되는 범주라는 믿음이다. 보편성은 동성애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분별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불변성과 보편성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Haslam & Levy, 2006).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먼저, 분별성은 집단 차이를 강조하여 내집단(이성애자)과 외집단(성소수자)의 분열을 더욱 심화하고,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하등 인간화의 견해를 조장하며, 편견의 발달을 지원하여 고정관념을 심화시킬 수 있다(Haslam, Rothschild, & Ernst, 2000; Rothbart & Taylor, 1992; Yzerbyt, Rocher, & Schadron, 1997). 불변성은 성적 지향을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Whitley, 1990). 이러한 불변성에 대한 믿음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주된 주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동성애자가 자연스럽다고 제안하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Haslam & Levy, 2006; Hubbard & Hegarty, 2014).

아직까지 국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를 활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비성소수자를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련을 나타내는지, 또한 본질주의적 믿음과 각 하위

요인 사이의 관계가 기존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Ⅲ.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가설 1-1:**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1-2:**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 문제 2]**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가설 2-1:** 국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 직접 접촉 경험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가설 2-2:** 국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 간접 접촉 경험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가설 2-3:** 국내 비성소수자의 종교적 근본주의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가설 2-4:** 국내 비성소수자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 IV. 연구 방법

###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비성소수자 남녀 한국인을 연구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연령을 연구 모집단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들이 청년 세대로서 미래의 사회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연령대이며, 상대적으로 온라인 설문에 접근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비성소수자, 즉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연구 모집단을 설정한 이유는 시스젠더 이외의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은 성소수자 범주에 속하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집에 앞서, G\*power 3.1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 시 필요한 연구 참가자의 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 참가자의 수를 산출했을 때,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로 인해 나타나는 1종 오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여 유의확률을 구하였다. 본페로니 교정은 유의확률을 예측 변인의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Dunnett, 1955),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의확률 값인 .05를 예측 변인의 수(16)로 나눠 0.003으로 설정하였다. 검증력은 영가설이 거짓이어서 기각해야 할 때 기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95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변인들이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여 효과크기는 .15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소 292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연구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고, 별도의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여 연구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에 총 718명의 연구 참가자가

참여하였으며, 중도 탈락 118명, 스크리닝 탈락 94명, 중복 IP 응답자 159명, 응답 소요 시간 4분 이하 25명, 한 줄 응답과 같은 불성실한 연구 참가자 14명으로 총 30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 도구

### 1)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 (1)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Herek(1988)이 개발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s Lesbians and Gays Scale; ATLGs)를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ATL)와 게이에 대한 태도(ATG)를 각각 10문항으로 측정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비난 대 관용(condemnation-tolerance)의 단일 요인으로 수렴된다. Herek(1994)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ATL)와 게이에 대한 태도(ATG)를 서로 다른 문항으로 측정하므로,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게이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게이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하위 척도를 선택해 동일한 문항으로 다른 하위 척도를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하위 척도를 선택하여, 레즈비언과 게이를 각각 지칭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레즈비언(게이)은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 척도는 9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 범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Herek, 1988)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92, 게이에 대한 태도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90, 게이에 대한 태도 .92이었다.

## (2)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Mohr와 Rochlen(1999)이 개발한 양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Scale; ARBS)를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문항 12개와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문항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버전과 남성 버전의 문항 내용은 동일하며, 성별 호칭만을 바꿔 제시된다. 본 척도는 양성애의 안정성과 양성애자 개인에 대한 관용의 두 하위 요인을 각각 6문항으로 측정한다. 양성애의 안정성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여성(남성)의 양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가 있으며, 양성애자 개인에 대한 관용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남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가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또한 선행 연구(Mohr & Rochlen, 1999)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채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에 대한 응답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높은 점수가 양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도록 채점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Mohr & Rochlen, 1999)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양성애자에 대한 관용 .88(양성애자 여성 .90, 양성애자 남성 .90), 양성애의 안정성 .91(양성애자 여성 .86, 양성애자 남성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양성애자에 대한 관용 .97(양성애자 여성 .95, 양성애자 남성 .95), 양성애의 안정성 .92(양성애자 여성 .85, 양성애자 남성 .85)이었다.

## 2)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

### (1) 직접 접촉 경험 문항들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Shim, Zhang, & Harwood, 2012)에서 직접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적절하게 수정하고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직접 접촉 경험은 접촉 빈도(3문항), 접촉의 질(3문항), 성소수자 친구 및 지인의 수(1문항)로 측정하였다.

접촉의 빈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구 참가자가 성소수자와 사적인 대화, 공부나 일, 사교적 활동을 함께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접촉 빈도 문항의 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귀하께서 LGB 사람들과 공부나 일을 함께 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나요?’ 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접촉 빈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없다 — 5: 4회 이상).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소수자와 접촉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Shim et al., 2012)에서 관찰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다음으로, 접촉의 질은 연구 참가자에게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즐거웠는지, 우호적이었는지를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귀하께서는 LGB 사람들과 보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가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소중하지 않다 — 5: 매우 소중하다). 직접 접촉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이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 없음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이들의 경우에는 접촉의 질을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또한 접촉의 질을 5점 리커트 척도 내에서 응답한 이들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소수자와 질 높은 접촉을 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Shim et al., 2012)에서 관찰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친구 및 지인의 수는 '귀하께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LGB 친구 및 지인이 몇 명 있으신가요?' 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슬라이드 척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친구 및 지인의 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연구 참가자의 성소수자 친구 및 지인의 수 범위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새롭게 코딩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1: 전혀 없음 - 5: 4명 이상).

## (2) 간접 접촉 경험 문항들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Shim, Zhang, & Harwood, 2012)에서 간접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적절하게 수정하고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간접 접촉 경험은 미디어 시청 시간(1문항), 미디어 다양성(1문항) 및 준사회적 상호작용(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GB 콘텐츠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등장인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미디어 시청 시간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보통 얼마나 오랫동안 인터넷, 텔레비전, DVD와 같은 미디어 채널을 통해 LGB 콘텐츠를 시청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시청 시간에 대한 추정치를 주관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미디어의 다양성은 '다음의 LGB 콘텐츠 목록 중 귀하께서 시청하셨던 콘텐츠에 체크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총 30개의 콘텐츠에 대

해 제목, 감독(방송사), 개봉 연도(방영 기간), 포스터(대표 사진)를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LGB 콘텐츠 목록 중 자신이 시청한 LGB 콘텐츠에 표기하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LGB 콘텐츠를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추가로 기재하였다. LGB 콘텐츠를 선정할 때에 네이버, 왓챠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객 수, 평점 등록자 수 등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연구 참가자가 좋아하는 LGB 등장인물을 떠올리고 해당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만약 좋아하는 LGB 등장인물이 없는 경우에는 시청해본 경험이 있는 LGB 콘텐츠를 하나 선택해서 해당 콘텐츠의 LGB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매력(3문항)과 인지된 사실성(3문항)의 6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매력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해당 등장인물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가 있으며, 인지된 사실성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해당 등장인물은 나에게 실제 인물처럼 느껴진다.’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선행 연구(Shim, Zhang, & Harwood, 2012)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3)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Liht와 동료들(2011)이 개발한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Fundamentalism Inventory; MDFI)를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종교 소속을 응답하도록 한 뒤,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는 기존의 문항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나의 종교’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여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본 척도는 외부 대 내부 권한(5문항), 고정 대 가변 종교(5문항), 세속적 거부 대 지지(5문항)의 세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대 내부 권한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고정 대 가변 종교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 종교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세속적 거부 대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모든 예술은 신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여야 한다.’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를 근본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Liht et. al., 2011)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외부 대 내부 권한 .78, 고정 대 가변 종교 .81, 세속적 거부 대 지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부 대 내부 권한 .68, 고정 대 가변 종교 .76, 세속적 거부 대 지지 .54이었다.

#### (4)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Haslam과 Levy(2006)가 개발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cale)를 번역-역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분별성(5문항), 불변성(5문항) 및 보편성(5문항)의 세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분별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성적 지향은 명확하고 뚜렷한 경계가 있는 범주다. 사람들은 동성애자거나 이성애자다.’, 불변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한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혹은 이성애자인지는 어린 시절에 거의 정해진다.’, 그리고 보편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동성애자들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 동안 쪽 존재해 왔을 것이다.’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지향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Huic, Jelic, & Kamenow, 2018)에서 내적 합치

도(Cronbach' s  $\alpha$ )는 분별성 .67, 불변성 .85, 보편성 .75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별성 .75, 불변성 .59, 보편성 .68이었다. 선행 연구에 비해 불변성의 내적 합치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내적 합치도를 낮추는 문항 10번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을 바꾸도록 도울 수 있다.'를 제외하였다. 이때 불변성의 내적 합치도는 .70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다만, 문항의 수가 적을 때 Cronbach' s  $\alpha$ 는 내적 합치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Nunnally, 1978), 해당 문항을 포함할 때의 결과를 별도의 각주로 제시하였다.

###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들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종교, 혼인 상태, 본인 및 부모의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수,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지향 및 연령에 관한 문항들은 본 연구에 연구 대상이 아닌 표본이 혼입되었는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다. 따라서 해당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검토하여,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 종교, 교육 수준, 소득, 혼인 상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 밝혔으므로(Herek, 198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주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종교 유무, 혼인 상태를 명목 척도, 교육 수준, 일인당 월평균 가계소득을 서열 척도, 연령을 비율 척도로 코딩하였고, 위계적 회귀 분석

시 해당 변인들을 1단계에 투입하여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후로 주요 변인을 2단계에 투입하여 주요 변인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3. 연구 절차

먼저, 연구 참가자는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하고 질문지 작성을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는 선별 문항에 응답하였는데,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속해서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 대상을 설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설문을 종료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에 무선화된 순서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성소수자 직접 접촉 문항들, 성소수자 간접 접촉 문항들,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에 순서대로 응답한 뒤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가자가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바라는 경우에 연구자의 메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참가에 대한 사례로 약 3,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트콘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 참가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사례를 지급한 후 즉시 폐기하였다.

###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척도 별로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동성애에 대한 근본주의적 믿음,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관계가 기존에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동일한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성별)x2(성적 지향)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통제 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종교 유무,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일인당 월평균 가계소득,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성소수자와의 직·간접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을 투입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설명량을 확인하였다.

## V. 결과

### 1.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는 총 308명으로, 본 분석에 앞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성별은 여성 184명(59.7%), 남성 124명(40.3%)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29세에 해당하는 20대가 188명(61.0%), 만 30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30대가 120명(39.0%)이었다. 종교 소속은 무교 219명(71.1%), 개신교 54명(18.2%), 천주교 23명(7.5%), 불교 10명(3.2%), 기타 2명(0.6%)으로,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가 가장 많았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240명(77.9%), 기혼이 68명(22.1%)이었다. 이외의 교육 수준, 부모님의 교육 수준, 가계 월평균 소득, 가계 구성원 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08)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여성	184	59.7
	남성	124	40.3
연령	20대(만 19세~만 29세)	188	61.0
	30대(만 30세~만 39세)	120	39.0
종교	개신교	54	18.2
	천주교	23	7.5
	불교	10	3.2
	무교	219	71.1
	기타	2	0.6
혼인 상태	미혼	240	77.9
	기혼	68	22.1
본인의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1	0.3
	고등학교 졸업	78	25.3
	전문대학 졸업	23	7.5
	대학교 졸업	171	55.5

	대학원 이상	35	11.4
아버지의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5	1.6
	중학교 졸업	9	2.9
	고등학교 졸업	101	32.8
	전문대학 졸업	29	9.4
	대학교 졸업	124	40.3
	대학원 이상	40	13.0
어머니의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9	2.9
	중학교 졸업	15	4.9
	고등학교 졸업	125	40.6
	전문대학 졸업	28	9.1
	대학교 졸업	110	35.7
	대학원 이상	21	6.8
가계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2	0.6
	15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10	3.2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26	8.4
	351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30	9.7
	451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33	10.7
	551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37	12.0
	651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36	11.7
	751만원 이상 850만원 이하	32	10.4
	851만원 이상 950만원 이하	18	5.8
951만원 이상	56	18.2	
가계 구성원 수	1인	12	3.9
	2인	41	13.3
	3인	87	28.2
	4인	134	43.5
	5인	30	9.7
	6인	3	1.0
	7인	1	0.3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1(하위)	2	0.6
	2	5	1.6
	3	29	9.4
	4	37	12.0
	5	73	23.7
	6	74	24.0
	7	53	17.2
	8	24	7.8
	9	8	2.6
	10(상위)	3	1.0

##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주요 변인들의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합산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산출하였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2.29( $SD=.89$ )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8.06세( $SD=5.60$ )이었다. 교육 수준의 평균은 4.52( $SD=1.00$ ),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합산하여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산출하였을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의 평균은 4.06( $SD=1.11$ )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평균 가계소득을 가계 구성원의 수로 나눠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였을 때, 평균 2.09( $SD=1.10$ )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은 5.41( $SD=1.64$ )으로 나타났다.

직접 접촉과 관련된 변인들의 경우, 직접 접촉의 빈도 평균은 1.65( $SD=1.57$ ), 직접 접촉의 질 평균은 2.70( $SD=1.86$ ), 성소수자 친구 및 지인의 평균은 2.09( $SD=1.42$ )로 나타났다. 간접 접촉과 관련된 변인들의 경우, 미디어 시청 시간(시간/일주일)의 평균은 1.76( $SD=4.96$ ), 미디어의 다양성 평균은 5.73( $SD=3.95$ ),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평균은 3.29( $SD=.90$ )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인 외부 대 내부 권한의 평균은 2.19( $SD=.75$ ), 고정 대 가변 종교의 평균은 2.14( $SD=.73$ ), 세속적 지지 대 거부의 평균은 2.06( $SD=.60$ )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변인인 분별성의 평균은 2.45( $SD=.80$ ), 불변성의 평균은 2.67( $SD=.82$ ), 보편성의 평균은 3.85( $SD=.60$ )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i>N</i>	<i>M</i>	<i>SD</i>	skewness	kurtosis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308	2.29	.89	.77	-.25
연령	308	28.06	5.60	.18	-.99
교육 수준	308	4.52	1.00	-.53	-.94
부모의 교육 수준	308	4.06	1.11	-.28	-.77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280	2.09	1.10	2.37	10.8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308	5.41	1.64	.02	-.06
직접 접촉의 빈도	308	1.65	1.57	.38	-1.43
직접 접촉의 질	308	2.70	1.86	-.37	-1.34
성소수자 친구의 수	308	2.09	1.42	1.02	-.38
미디어 시청 시간	308	1.76	4.96	5.40	35.51
미디어의 다양성	308	5.73	3.95	.94	.55
준사회적 상호작용	308	3.29	.90	-.42	.14
외부 대 내부 권한	308	2.19	.75	.58	.07
고정 대 가변 종교	308	2.14	.73	.31	-.45
세속적 거부 대 지지	308	2.06	.60	.80	.84
분별성	308	2.45	.80	.20	-.52
불변성 <sup>4)</sup>	308	2.67	.82	-.02	-.42
보편성	308	3.85	.60	-.38	.04

\* $p < .05$ , \*\* $p < .01$  \*\*\* $p < .001$ .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관계가 기존에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동일한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연령은 .21( $p < .001$ ), 성별은 .27( $p < .001$ ), 교육 수준은 .17( $p = .003$ )로 각각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종교 유무는 -.15( $p = .008$ ), 결혼 상태는 -.17( $p = .004$ )로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4) 내적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M=2.85$ ,  $SD=.70$ , skewness=.14 , kurtosis=-.20으로 나타났다.

태도와 부모의 교육 수준,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접촉 경험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직접 접촉의 빈도는  $-.30(p<.001)$ , 직접 접촉의 질은  $-.29(p<.001)$ , 성소수자 친구 및 지인의 수는  $-.26(p<.001)$ , 미디어의 다양성은  $-.23(p<.001)$ 으로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65(p<.001)$ 로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미디어 시청 시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외부 대 내부 권한은  $.32(p<.001)$ , 고정 대 가변 종교는  $.38(p<.001)$ , 세속적 거부 대 지지는  $.44(p<.001)$ 로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분별성은  $.75(p<.001)$ 으로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불변성은  $.14(p=.018)$ 로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은  $-.65(p<.001)$ 로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N=3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1																				
2	.21***	1																			
3	.27***	.11	1																		
4	-.15**	.04	.13'	1																	
5	-.17**	-.57***	.07	.04	1																
6	.17**	.65***	.02	.03	-.29***	1															
7	-.01	-.26***	-.06	-.06	.23***	-.03	1														
8	.11	.26***	.15'	.08	-.09	.30***	.18**	1													
9	.02	-.01	.05	.04	.04	-.09	-.33***	-.29***	1												
10	-.30***	-.22***	-.21***	-.06	.13'	-.06	.05	-.02	.02	1											
11	-.29***	-.17**	-.20**	-.07	.10	-.05	.03	-.02	.00	.76***	1										
12	-.26***	-.21***	-.05	.00	.18**	-.09	.06	-.01	-.09	.67***	.59***	1									
13	.08	.09	-.03	.08	-.09	.02	-.01	.09	-.03	.04	.06	.02	1								
14	-.23***	.11'	-.14'	.05	-.14'	.12'	-.07	.11	-.09	.23***	.20***	.15**	.16**	1							
15	-.65***	-.20**	-.27***	.09	.09	-.17**	.00	-.12'	.04	.34***	.34***	.31***	-.06	.33***	1						
16	.32***	.15'	.00	-.37***	-.04	.10	.04	.03	.06	.02	.06	.05	.00	-.05	-.13'	1					
17	.38***	.10	.07	-.15**	-.03	.07	.00	.09	.01	-.10	-.09	-.06	.02	-.10	-.28***	.47***	1				
18	.44***	.08	.12'	-.10	-.09	.10	.01	.04	-.04	-.15'	-.01	-.02	.07	-.11	-.20***	.43***	.29***	1			
19	.75***	.28***	.22***	-.07	-.18**	.20***	-.04	.17**	.01	-.35***	-.30***	-.30***	.05	-.19***	-.54***	.21***	.33***	.37***	1		
20 <sup>5)</sup>	.14'	.19**	.01	.06	-.06	.18**	.01	.15'	.02	-.13'	-.08	-.10	.01	.05	-.12'	-.03	.06	.14'	.35***	1	
21	-.65***	-.20**	-.29***	.08	.10	-.12'	-.04	-.13'	.00	.35***	.26***	.21***	-.08	.19**	.52***	-.31***	-.46***	-.43***	-.56***	-.10	1

\* $p < .05$ , \*\* $p < .01$  \*\*\* $p < .001$ . 1=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2=연령, 3=성별, 4=종교 유무, 5=결혼 상태, 6=교육 수준, 7=부모의 교육 수준, 8=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9=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0=직접 접촉의 빈도, 11=직접 접촉의 질, 12=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13=미디어 시청 시간, 14=미디어의 다양성, 15=준사회적 상호작용, 16=외부 대 내부 권한, 17=고정 대 가변 종교, 18=세속적 거부 대 지지, 19=불변성, 20=불변성, 21=보편성.

주) 성별은 여성=1 남성=2, 종교 유무는 1=종교 있음 2=종교 없음, 혼인상태는 1=기혼, 2=미혼 3=이혼으로 코딩하였다.

5) 내적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불변성과 각 변인의 상관은 1=-.08, 2=.12', 3=-.09, 4=.09 5=-.01, 6=.15', 7=.02, 8=.11, 9=.00, 10=.02, 11=-.01, 12=.02, 13=-.01, 14=.13', 15=.05, 16=-.10, 17=-.03, 18=.03, 19=.14', 21=.08로 나타났다.

### 3.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성소수자의 태도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별에 따라 비성소수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이 자료에 대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소수자의 성별( $F(1, 307)=37.96, p<.001$ )과 성적 지향( $F(1, 307)=142.85, p<.001$ )에 따라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의 성별이 남성( $M=2.33$ )일 때보다 여성( $M=2.22$ )일 때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양성애자( $M=2.42$ )일 때보다 동성애자( $M=2.14$ )일 때 태도가 긍정적이었다(표 4).

표 4.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성소수자의 태도에 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N=308)

변인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성별	3.58	1	3.58	37.96***	p<.001
오차(성별)	28.96	307	.09		
성적 지향	24.17	1	24.17	142.85***	p<.001
오차(성적 지향)	51.94	307	.17		

요인	차원	M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성별	여성	2.22	.05	2.12	2.32
	남성	2.33	.05	2.23	2.43
성적 지향	동성애자	2.14	.05	2.03	2.24
	양성애자	2.42	.05	2.31	2.52

\*p<.05, \*\*p<.01 \*\*\*p<.001.

### 4.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간 관계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성별과 종교 유무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6.64,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6.4%(수정 계수 13.9%)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변인의 공차는 .378~.973로 .1이상이었으며, VIF(분산팽창요인) 계수는 최대가 2.649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 값은 1.794로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도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가운데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종교적인 것에 비해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을수록, 성적 지향이 타고 태어나며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을수록, 동성애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 값은 35.717,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73.4%(수정 계수 71.3%)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변인의 공차는 .316~.924로 .1이상이었으며,

VIF(분산팽창요인) 계수는 3.169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 값은 2.195로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도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제시되는 모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협이 없고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을 하지 않았다.

표 5.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B	$\beta$	t	p	B	$\beta$	t	p	
통 제 변 인	성별	.58	.31	5.39***	.000	.10	.06	1.50	.136
	연령	.01	.03	.34	.733	-.01	-.09	-1.58	.116
	종교 유무	-.39	-.19	-3.44**	.001	-.11	-.05	-1.48	.140
	혼인 상태	-.29	-.14	-1.91	.058	-.16	-.07	-1.78	.076
	교육 수준	.08	.08	1.12	.266	.03	.03	.62	.537
	부모의 교육 수준	.05	.06	.97	.333	.02	.02	.60	.547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3	.04	.59	.558	-.01	-.02	-.46	.645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3	.05	.78	.436	.02	.03	.71	.477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4	.07	1.25	.213	
	직접 접촉의 질				-.03	-.06	-1.08	.281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02	-.03	-.54	.589	
	미디어 시청 시간				.00	.02	.64	.523	
	미디어의 다양성				.00	.00	.11	.915	
	준사회적 상호작용				-.31	-.31	-7.09***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07	.06	1.35	.178	
	고정 대 가변 종교				.02	.02	.39	.699	
	세속적 거부 대 지지				.17	.12	2.85**	.005	
	분별성				.52	.46	10.06***	.000	
불변성 <sup>6)</sup>				-.09	-.08	-2.14*	.033		
보편성				-.21	-.14	-2.95**	.003		
$R^2$		.164				.734			
수정된 $R^2$		.139				.713			
$R^2$ 변화량		.164				.570			
F		6.64***				35.72***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 $p < .01$  \*\*\* $p < .001$ .

Durbin-Watson 2.195

6) 내적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불변성 값은  $B = -.14$ ,  $\beta = -.10$ ,  $t = -3.00$ \*\*  $p = .003$ 로 나타났다.

추가로 성소수자와 직접 접촉 경험이 없는 비성소수자들( $n=97$ )의 경우, 접촉의 빈도, 접촉의 질,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등 직접 접촉 관련 변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비성소수자들의 자료에 대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소수자와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비성소수자들( $n=211$ )에 대해 별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과 종교 유무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4.69, 유의확률은  $p<.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7.1%(수정 계수 13.5%)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된 변인 중 종교 유무가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직접 접촉의 질,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지지 및 분별성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교가 없을수록, 직접 접촉의 질이 높을수록,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종교적인 것에 비해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 값은 22.34, 유의확률은  $p<.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72.4%(수정 계수 69.2%)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표 6. 직접 접촉 경험을 보고한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211)

	1단계				2단계				
	B	$\beta$	t	p	B	$\beta$	t	p	
통제변인	성별	.60	.32	4.46***	.000	.13	.07	1.40	.165
	연령	.01	.03	.25	.807	-.02	-.10	-1.34	.183
	종교 유무	-.38	-.20	-2.90**	.004	-.18	-.10	-2.13*	.034
	혼인 상태	-.29	-.14	-1.58	.116	-.17	-.08	-1.52	.130
	교육 수준	.07	.08	.82	.412	.04	.05	.86	.393
	부모의 교육 수준	.03	.04	.50	.615	.03	.03	.69	.491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1	.01	.14	.888	-.03	-.03	-.69	.489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2	-.03	-.43	.670	.01	.03	.55	.583
	예측변인	직접 접촉의 빈도				.03	.04	.78	.439
직접 접촉의 질					-.09	-.11	-2.07*	.040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00	.00	-.04	.971	
미디어 시청 시간					.00	.02	.54	.591	
미디어의 다양성					.01	.04	.92	.359	
준사회적 상호작용					-.31	-.30	-5.05***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06	.05	.94	.351	
고정 대 가변 종교					.00	.00	.02	.987	
세속적 거부 대 지지					.19	.13	2.40*	.018	
분별성					.47	.42	6.94***	.000	
불변성 <sup>7)</sup>				-.04	-.03	-.69	.492		
보편성				-.18	-.12	-1.90	.059		
$R^2$			.171			.724			
수정된 $R^2$			.135			.692			
$R^2$ 변화량			.171			.553			
F			4.69***			22.34***			
유의 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 $p < .01$ , \*\*\* $p < .001$ .

Durbin-Watson 1.996

## 5.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태도 간 관계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 각각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다른 관계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각 태도에 대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레즈비언에 대한

7) 내적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직접 접촉 경험을 보고한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불변성의  $B = -.09$ ,  $\beta = -.07$ ,  $t = -1.53$   $p = .127$ 로 나타났다.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7, 게이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8,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9,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성별과 종교 유무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레즈비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6.07,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5.2%(수정 계수 12.7%)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이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직접 접촉의 빈도, 직접 접촉의 질, 준사회적 상호작용, 외부 대 내부 권한, 고정 대 가변 종교,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불변성, 보편성이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접촉 빈도가 낮을수록, 접촉의 질이 높을수록,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등장인물에 대한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이 높을수록,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위한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수록, 종교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종교적인 것에 비해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을수록, 성적 지향이 타고 태어나며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을수록, 동성애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을수록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 값은 40.08,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70.3%(수정 계수 68.0%)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표 7.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B	$\beta$	t	p	B	$\beta$	t	p	
통 제 변 인	성별	.58	.32	5.40***	.000	.11	.06	1.50	.135
	연령	.00	.00	.05	.961	-.02	-.10	-1.69	.093
	종교 유무	-.35	-.18	-3.12**	.002	-.03	-.02	-.44	.664
	혼인 상태	-.27	-.13	-1.79	.074	-.17	-.08	-1.81	.071
	교육 수준	.10	.10	1.37	.171	.04	.04	.84	.403
	부모의 교육 수준	.03	.04	.60	.549	.00	.00	.00	1.000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1	.01	.13	.896	-.03	-.03	-.87	.385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3	.06	1.01	.312	.02	.04	1.00	.319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7	.13	2.11*	.036	
	직접 접촉의 질				-.06	-.13	-2.43*	.016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01	-.03	-.39	.701	
	미디어 시청 시간				.00	-.00	-.04	.968	
	미디어의 다양성				-.01	-.02	-.51	.608	
	준사회적 상호작용				-.34	-.34	-7.44***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11	.09	2.02*	.045	
	고정 대 가변 종교				.11	.09	2.22*	.027	
	세속적 거부 대 지지				.23	.15	3.60***	.000	
	분별성				.37	.33	6.85***	.000	
불변성 <sup>8)</sup>				-.09	-.08	-2.20*	.029		
보편성				-.19	-.13	-2.49*	.014		
$R^2$		.152				.703			
수정된 $R^2$		.127				.680			
$R^2$ 변화량		.152				.551			
F		6.07***				40.08***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 $p < .01$  \*\*\* $p < .001$ .

Durbin-Watson 2.184

게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성별, 종교 유무, 혼인 상태가 게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미혼일수록 게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1단계에서의

8) 내적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불변성 값은  $B = -.15$ ,  $\beta = -.11$ ,  $t = -3.08^{**}$   $p = .002$ 로 나타났다.

$F$ 값은 7.06,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7.2%(수정 계수 14.8%)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된 성별이 여전히 게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연령 또한 게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및 보편성이 게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종교적인 것에 비해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을수록, 동성애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을수록 게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 값은 26.37,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67.1%(수정 계수 64.5%)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표 8. 게이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B$	$\beta$	$t$	$p$	$B$	$\beta$	$t$	$p$	
통 제 변 인	성별	.69	.35	6.02***	.000	.22	.11	2.74**	.007
	연령	.00	-.02	-.24	.809	-.02	-.13	-2.20*	.029
	종교 유무	-.37	-.17	-3.04**	.003	-.06	-.03	-.66	.511
	혼인 상태	-.33	-.14	-2.04*	.042	-.20	-.09	-1.84	.067
	교육 수준	.10	.11	1.41	.160	.05	.05	1.03	.303
	부모의 교육 수준	.05	.06	.94	.349	.02	.02	.58	.562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3	.04	.62	.539	-.02	-.02	-.41	.681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5	.08	1.33	.184	.04	.06	1.43	.154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5	.08	1.18	.239	
	직접 접촉의 질				-.04	-.08	-1.40	.162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01	-.02	-.33	.742	
	미디어 시청 시간				.00	.02	.61	.542	
	미디어의 다양성				.01	.04	1.10	.274	
	준사회적 상호작용				-.29	-.27	-5.61***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11	.08	1.69	.093	
	고정 대 가변 종교				.07	.05	1.20	.230	

세속적 거부 대 지지		.23	.14	3.11**	.002
분별성		.49	.41	7.90***	.000
불변성 <sup>9)</sup>		-.08	-.07	-1.76	.079
보편성		-.21	-.13	-2.47*	.014
$R^2$	.172			.671	
수정된 $R^2$	.148			.645	
$F^2$ 변화량	.172			.498	
$F$	7.06***			26.37***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 $p < .01$  \*\*\* $p < .001$ .

Durbin-Watson 2.298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성별과 종교 유무가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양성애자 여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5.97,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5.0%(수정 계수 12.5%)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이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및 보편성이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종교적인 것에 비해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을수록, 동성애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을수록 양성애자

9) 내적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게이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불변성 값은  $B = -.14$ ,  $\beta = -.09$ ,  $t = -2.47^*$   $p = .014$ 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 값은 29.64,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69.6%(수정 계수 67.2%)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표 9.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B	$\beta$	t	p	B	$\beta$	t	p	
통 제 변 인	성별	.54	.28	4.84***	.000	.06	.03	.79	.433
	연령	.01	.06	.64	.522	-.01	-.06	-.95	.343
	종교 유무	-.43	-.21	-3.62***	.000	-.15	-.07	-1.93	.054
	혼인 상태	-.27	-.12	-1.72	.087	-.15	-.07	-1.47	.143
	교육 수준	.06	.06	.80	.427	.01	.01	.13	.897
	부모의 교육 수준	.05	.06	.88	.380	.02	.02	.45	.651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3	.03	.48	.632	-.02	-.02	-.44	.664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1	.02	.25	.799	.00	.00	-.06	.953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3	.05	.73	.467	
	직접 접촉의 질				-.01	-.02	-.37	.713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02	-.02	-.46	.644	
	미디어 시청 시간				.00	.02	.54	.587	
	미디어의 다양성				-.01	-.03	-.65	.518	
	준사회적 상호작용				-.34	-.32	-6.88***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07	.05	1.14	.254	
	고정 대 가변 종교				-.03	-.03	-.58	.566	
	세속적 거부 대 지지				.15	.10	2.27*	.024	
	분별성				.56	.48	9.67***	.000	
불변성 <sup>10)</sup>				-.09	-.08	-1.97	.050		
보편성				-.18	-.11	-2.25*	.025		
$R^2$		.150				.696			
수정된 $R^2$		.125				.672			
$R^2$ 변화량		.150				.546			
F		5.97***				29.64***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 $p < .01$  \*\*\* $p < .001$ .

Durbin-Watson 2.120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태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성별과 종교 유무가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 내적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불변성의  $B = -.13$ ,  $\beta = -.10$ ,  $t = -2.65^{**}$   $p = .009$ 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양성애자 남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5.56,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4.1%(수정 계수 11.6%)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이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 분별성 및 보편성이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을수록, 동성애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을수록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 값은 26.62,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67.3%(수정 계수 64.7%)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종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B	$\beta$	t	p	B	$\beta$	t	p	
통 제 변 인	성별	.51	.26	4.43***	.000	.04	.02	.48	.632
	연령	.01	.06	.70	.487	-.01	-.05	-.90	.369
	종교 유무	-.39	-.19	-3.24**	.001	-.16	-.08	-1.88	.061
	혼인 상태	-.28	-.12	-1.73	.084	-.13	-.06	-1.25	.214
	교육 수준	.06	.06	.79	.432	.02	.02	.31	.759
	부모의 교육 수준	.07	.08	1.20	.232	.03	.04	.95	.341
	일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5	.06	.92	.361	-.00	.00	-.03	.975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2	.03	.52	.603	.01	.01	.32	.751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3	.04	.63	.529	
	직접 접촉의 질				-.00	.00	-.03	.974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02	-.03	-.68	.498	
	미디어 시청 시간				.01	.04	.99	.326	
	미디어의 다양성				.00	.02	.39	.695	
	준사회적 상호작용				-.27	-.26	-5.27***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고정 대 가변 종교				.01 -.05	.01 -.04	.20 -.91	.844 .364	

세속적 거부 대 지지		.10	.06	1.42	.156
분별성		.64	.53	10.35***	.000
불변성 <sup>11)</sup>		-.08	-.07	-1.68	.095
보편성		-.26	-.16	-3.10**	.002
$R^2$	.141			.673	
수정된 $R^2$	.116			.647	
$R^2$ 변화량	.141			.532	
$F$	5.56***			26.62***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 $p < .01$  \*\*\* $p < .001$ .

Durbin-Watson 2.083

11) 내적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불변성의  $B = -.13$ ,  $\beta = -.09$ ,  $t = -2.43^*$   $p = .016$ 로 나타났다.

## VI. 논의

### 1.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별이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긍정적이었으며, 성적 지향이 양성애자일 때보다 동성애자일 때 긍정적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성별과 종교 유무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통제되었을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에서 접한 성소수자 등장인물이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며 사실적으로 인지될수록,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기보다 지지할수록,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

에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가 없다고 믿을수록, 성적 지향이 생물학에 기반하고 어린 시절에 결정되며 고정되는 범주라고 믿을수록, 동성애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경험이 없는 비성소수자들(n=97)의 경우에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직접 접촉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소수자와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비성소수자들(n=211)에 대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통제되었을 때, 접촉의 질,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의 질을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미디어에서 접한 성소수자 등장인물이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며 사실적으로 인지될수록,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기보다 지지할수록,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가 없다고 믿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비성소수자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가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에 의해 다르게 예측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통제되었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접촉의 빈도, 접촉의 질, 준사회적 상호작용, 외부 대 내부 권한, 고정 종교 대 가변 종교,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에 따라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통제되었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및 보편성에 따라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성

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통제되었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차별성 및 보편성에 따라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태도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통제되었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준사회적 상호작용, 차별성 및 보편성에 따라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첫째,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레즈비언보다 게이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던 선행 연구들(e.g.,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Eliason, 1997; Herek, 2000b, 2002; LaMar & Kite, 1998; Proulx, 1997; Span & Vidal, 2003; Whitley, 2001)과 양성애자 여성보다 양성애자 남성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던 선행 연구들(e.g., Helms & Waters, 2016; Herek, 2002; Mohr & Rochlen, 1999; Steffens & Wagner, 2004)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은 성역할 위반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성역할 위반자는 성역할 순응자에 비해 미움을 받지만(e.g., Laner & Laner, 1979, 1980), 성역할 위반자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성역할 위반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e.g., Feinman, 1981; Herek, 1986a; Stockard & Johnson, 1979). 즉, 여성보다 남성의 성역할 경직성이 더 높아 성역할 위반자로 인식될 때 더 강력하게 거부되므로 보다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게이와 AIDS 관련 낙인과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Herek, 1995, Herek & Glunt, 1991)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AIDS

관련 낙인은 여성보다 남성과 관련되므로, 이에 따라 남성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상이하다는 선행 연구들(e.g., Eliason, 1997; Herek, 2002)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은 양성애자들은 성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성애-동성애 이분법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불안이나 불편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e.g., Ochs, 1996; Ochs & Deihl, 1992; Paul, 1996; Paul & Nichols, 1988; Rust, 1996).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양성애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그들의 성적 지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임시로 성적 지향을 양성애자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로 정체화할 용기가 부족하거나(Eliason, 2001), 이성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애의 안정성 혹은 진정성을 의심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비해 양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 연구들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던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종교 유무만이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성별과 종교 유무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예측 변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일인당 월평균 가계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연령을 한정시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변인들의 표본 내 변산성이 크지 않아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경험은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지지 않아, 가설 2-1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을 드러냈을 때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비성소수자 개인들이 성소수자 개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직접 접촉 경험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와 직접 접촉 경험이 없는 연구 참가자는 31.5%이며, 직접 접촉 경험이 있는 연구 참가자는 68.5%로, 연구 참가자의 약 삼분의 일이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비성소수자들의 경우에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접촉 관련 변인들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접 접촉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이들(68.5%)만을 대상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직접 접촉 변인 중 접촉의 질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촉의 양 자체보다는 접촉의 질이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e.g., Caspi, 1984; Cook, 1985; Deforges et al., 1991; Sigelman & Welch, 1993; Wittig & Grant-Thompson, 1998)를 제한적으로 반복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 직접 접촉 경험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므로, 추후 연구에서 성소수자 직접 접촉 경험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와의 간접 접촉 경험의 일부 변인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가설 2-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미디어 시청 시간과 미디어의 다양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시청 시간과 미디어

어의 다양성은 간접 접촉의 양에 대한 측정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접촉의 양 자체보다는 접촉의 질이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는 연구들(Caspi, 1984; Cook, 1985; Deforges et al., 1991; Sigelman & Welch, 1993; Wittig & Grant-Thompson, 1998)을 통해 미디어 시청 시간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접촉의 변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간접 접촉의 변인 중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집단 간 직접 접촉의 기회가 제한적일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간접 접촉으로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선행 연구(e.g., Neuendorf, Armstrong, & Brentar, 1992; Fujioka, 1999; Tan, Fujioka, & Lucht, 1997)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접 접촉 경험은 제한적으로 보고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안적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간접 접촉으로서 편견을 감소시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을 수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일부 하위 요인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가설 2-3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인 외부 대 내부 권한, 고정 대 가변 종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지만, 세속적 거부 대 지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는 종교적 입장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므로 세속적인 것을 거부할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세속적 지지는 종교적 존재보다 자연 세계, 과학, 세속적 문화,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인 차별성, 불변성, 보편성 모두가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가설 2-4가 지지되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중 차별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며, 불변성과 보편성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연구 결과(Haslam & Levy, 2006)를 반복 검증한 결과이다. 차별성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간 집단 차이를 강조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의 분열을 더욱 심화하고,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하등 인간화의 견해를 조장하여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Haslam, Rothschild, & Ernst, 2000; Rothbart & Taylor, 1992; Yzerbyt, Rocher, & Schadron, 1997). 반면, 불변성은 성적 지향을 타고 태어나며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Whitley, 1990), 보편성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동성애자가 자연스럽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Haslam & Levy, 2006; Hubbard & Hegarty, 2014). 특히, 본 연구에서 차별성의 표준화 계수  $\beta=.46$ 으로 나타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중 차별성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접촉의 빈도, 접촉의 질,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인 외부 대 내부 권한 및 고정 대 가변 종교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하였던 불변성은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하였던 세속적 거부 대 지지는 양성

애자 남성애에 대한 태도에서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일부 결과에 대해서 추측하자면, 연구 참가자들이 직접 접촉한 성소수자가 레즈비언이었기 때문에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에서만 직접 접촉의 빈도와 질이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가 어떤 성소수자 구성원과 접촉하였는가를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어떤 성소수자 구성원과 접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특성 관련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가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는 동성애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비성소수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추후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면 추후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하고자 할 때,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비성소수자가 성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고안하여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선행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성별과 종교 유무를 제외한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지만,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변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비교하였을 때도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심리·사회적인 변인의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심리·사회적인 변인이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심리·사회적인 변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심리·사회적인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를 사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척도의 하위 요인별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수준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유용한 예측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고정관념 및 편견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일부 주장(e.g., Allport, 1954; Leyens et al., 2000; Rothbart & Taylor, 1992; Yzerbyt & Rocher, 2002)과는 다르게,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Haslam & Levy, 2006)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경로를 확인하여 보다 확장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사회적으로 다른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Herek, 2000a; Kaiser Family Foundation, 2001), 이성애자가 이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 또한 상이하다(Eliason, 1997; Herek, 2002). 따라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해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면 각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에 대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 척도(ATLGS)를 사용하고, 양성애자에 대한 관용과 양성애에 대한 안전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양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ARBS)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념, 사건, 대상 등에 함축된 의미를 여러 차원으로 미분하는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Osgood, 1952)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의 문제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 중 외부 대 내부 권한의 내적 합치도는 선행 연구에서 .78, 본 연구에서 .68이었으며, 세속적 거부 대 지지의 내적 합치도는 선행 연구에서 .86, 본 연구에서 .54이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중 불변성의 내적 합치도는 선행 연구에서 .85, 본 연구에서 .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하위 요인에서 선행 연구보다 내적합치도가 더 낮게 나타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와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는 별도의 척도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변안하여 사용되어 낮은 내적 합치도가 나타났으리라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를 사용하기에 앞서 국내

의 상황에 적절하게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일부 문항들에서 바닥 효과가 관찰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접촉 경험은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지만, 본 연구에 직접 접촉의 빈도, 성소수자 친구 및 지인 수, 미디어 시청 시간 및 미디어의 다양성과 같은 변인들은 바닥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해당 변인들이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본 연구에서 포착되지 않았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항들에 대해 평균과 변산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접촉 경험을 측정할 때 성소수자 개인과 사적인 접촉을 가진 경험과 같은 직접 접촉에 더하여 성소수자 개인을 마주친 경험이나 성소수자 축제나 부스를 접한 경험과 같이 낮은 상호작용 수준의 직접 접촉 경험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룬 강의나 수강한 경험, 성소수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과의 접촉과 같은 대리 접촉이나 확장 접촉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접촉 경험을 측정하여,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접촉 경험이 자주 나타나며, 해당 접촉 경험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의 표집을 사용하여 연구 참가자들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연구 참가자 모집 시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연구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므로,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에 다수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욕

설을 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며 연구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강현선, 김현주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47, 7-29.
- 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성소수자(LGB)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정체성을 중심으로. 질적탐구, 4(4), 197-232.
- 김미라 (2008).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2), 353-337.
- 김선영 (2014). 성 소수자 바라보기: 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 교육학연구, 52(2), 23-52.
- 김선영 (2020). 성 소수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297-319.
- 김선화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31-63.
- 김은하, 신윤정 (2016). 중, 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에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31-453.
- 김장생 (2020).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와 동성애 혐오. 사회과학연구, 27(특별), 99-128.
- 김정숙, 전유림, 김명찬 (2021). 성소수자와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있는 비성소수자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3), 671-691.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김철권 (2013). 게이와 레즈비언을 다룬 영화가 의과대학생의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영화연구, 56(0), 103-128.

남궁미, 박정은 (2020).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69-1498.

다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2021). 2021 한일 동성혼 교류 결과기록집. <https://dawoom-t4c.org/167?category=908423> 에서 자료 얻음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25-245.

박선진 (2010). 동성애에 관한 고등학교 사회과교사의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은경, 안은미, 백형의 (2014).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성적 소수자 인식 영향 변수 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403-424.

조령함, 이윤, 이해은 (2021). 동성애 관련 미디어 이용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18-22세 청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4), 123-136.

조여울 (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 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박경미 (2020),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서울: 한티재.

박도담 (2017).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orean version of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란 (2019). 성소수자(LGBT)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동성애자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997-1021.
- 백인규, 고영건, 문기범 (2019). 정신건강 2요인 모델 타당화 연구: 젊은 성소수자(LGB)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403-433.
- 서영석, 이정립,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6).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http://sogilaw.org/69> 에서 자료 얻음
- 신경희 (2018). 성소수자 친화적 다문화 교사교육을 통한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6(2), 81-101.
- 안미연 (2017).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시청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태도, 참여의도, 활동량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가현 (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윤성현, 류혜옥 (2016).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요소에 따른 성의식, 동성애 태도와 의 상관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3), 105-137.
-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 이봉재 (2006). 동성애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1-19.
- 이성원, 연규진 (2020).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이

-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39-666.
- 이솔희 (2019). 한국판 LGB 미묘한 차별 경험 척도(K-LGB-MA)의 개발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29-147.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 (2019). 한국사회 동성애 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 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12), 161-162.
- 장인실 (2017).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및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60-569.
- 장형철 (2018).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변동의 특징-연령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16(1), 181-219.
- 전민경, 전재희, 황선아 (2017). 고등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0), 631-642.
- 정애경, 윤은희 (2020). 한국 이성애자의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탐색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583-608.
- 정은하 (2020). 보건교사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503-515.
- 최경화, 신형진 (2019). 양성평등 의식이 동성애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26(3), 81-102.

- 키쉬겔개이 (2018). 성소수자의 권리 및 수용 현대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동성애자 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 레즈비언상담소 (2014). 무지개 성 상담소. 서울: 양철북 출판사.
- 허지선 (2015). 성소수자(LGBQ)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후지사키 요시애, 강신재, 진영재 (2019). 온라인 정치적 활동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3), 33-67.
- BBC News 코리아 (2020).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에서 자료 얻음
- Butler, J. (2006).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과주: 문학동네.
- Adamczyk, A., & Pitt, C. (2009). Shaping attitudes about homosexuality: The role of religion and cultural context. *Social Science Research*, 38(2), 338-351.
- Alexander, R. A. (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homophobia and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in gay m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SA.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Altemeyer, B. (2001). Changes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42(2), 63–75.

Altemeyer, B., & Hunsberger, B. (1992). Authoritarianism,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and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2), 113–13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American Psychologist*, 67(1), 10–4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70(9), 832–864.

Andersen, R., & Fetner, T. (2008). Cohort differences in tolerance of homosexuality: Attitudinal chang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1981–2000. *Public Opinion Quarterly*, 72(2), 311–330.

Arli, D., Badejo, A., & Sutanto, N. (2020). Exploring the effect of intrinsic religiousness, extrinsic religiousness, and religious fundamentalism on people's attitude towards lesbians and gays in Indonesia.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32(2), 118–134.

Basow, S. A., & Johnson, K. (2000). Predictors of homophobia in female college students. *Sex Roles*, 42(5), 391–404.

Baunach, D. M. (2012). Changing same-sex marriage attitudes in America from 1988 through 2010. *Public Opinion Quarterly*, 76(2), 364–378.

Baunach, D. M., Burgess, E. O., & Muse, C. S. (2009). Southern (dis)comfort: Sexual prejudice and contact with gay men and

- lesbians in the South. *Sociological Spectrum*, 30(1), 30–64.
- Beane, J. (1981). I'd rather be dead than gay: Counseling gay men who are coming ou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222–226.
- Bettinsoli, M. L., Suppes, A., & Napier, J. L. (2020).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 women in 23 countri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5), 697–708.
- Birchmore, A., & Kettrey, H. H. (2021). Exploring the boundaries of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bury your gays” media trope on homophobic and sexist attitudes. *Feminist Media Studies*. E-publication ahead of print. DOI: 10.1080/14680777.2021.1887919.
- Bobo, L., & Licari, F. C. (1989).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Testing the effects of cognitive sophistication and target group affe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3), 285–308.
- Boyer, S. J., & Lorenz, T. K. (2020). The impact of heteronormative ideals imposition on sexual orientation questioning distres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7(1), 91–100.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554–594). New York: McGraw Hill.
- Brewer, P. R. (2003). The shifting foundations of public opinion about gay rights. *Journal of Politics*, 65(4), 1208–1220.

- Brookey, R. (2002). *Reinventing the male homosexual: The rhetoric and power of the gay gen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Brown, M. J., & Henriquez, E. (2008). Socio-Demographic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s Gays and Lesbians.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6*(3), 193–202.
- Brumbaugh, S. M., Sanchez, L. A., Nock, S. L., & Wright, J. D. (2008). Attitudes toward gay marriage in states undergoing marriage law transform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345–359.
- Cabaj, R. P. (1988). Homosexuality and neurosis: Considerations for psychotherapy. *Journal of Homosexuality, 15*(1–2), 13–23.
- Cantril, H., & Allport, G. (1935). *The psychology of radio*. New York: Harper.
-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t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74–80.
- Conway, J. C., & Rubin, A. M. (1991). Psychological predictors of television viewing motiv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4), 443–463.
- Cook, S. W. (1985). Experimenting on social issues: The case of school desegregation. *American Psychologist, 40*(4), 452–460.
- Cotten-Huston, A. L., & Waite, B. M. (2000). Anti-homosexual attitudes in college students: Predictors and classroom interventions. *Journal of Homosexuality, 38*(3), 117–133.

- Cox, S., Bimbi, D. S., & Parsons, J. T. (2013). Examination of social contact on binegativity among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Bisexuality, 13*(2), 215-228.
- Davies, M. (2004). Correlates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gay men: Sexism, male role norms, and male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41*(3), 259-266.
- Desforges, D. M., Lord, C. G., Ramsey, S. L., Mason, J. A., Van Leeuwen, M. D., West, S. C., & Lepper, M. R. (1991). Effects of structured cooperative contact on changing negative attitudes toward stigmatized so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31-544.
- Dunnett, C. W. (1955). A multiple comparisons procedure for comparing several treatments with a control.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272), 1096-1121.
- Eddy, D. M. (1986). Before and after attitudes toward aging in a BSN program.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2*(5), 30-34.
- Eliason, M. J. (1997).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biphobia in heterosexual undergraduat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3), 317-326.
- EQUALDEX, *LGBT Rights in South Korea*, Retrieved 6, 2021, from <https://www.equaldex.com/region/south-korea>.
- Ernulf, K. E., Innala, S. M., & Whitam, F. L. (1989). Biological explanation, psychological explanation, and tolerance of homosexuals: A cross-national analysis of beliefs and

- attitudes. *Psychological Reports*, *65*(3), 1003–1010.
- Falomir–Pichastor, J. M., & Mugny, G. (2009). I'm not gay, I'm a real man!: Heterosexual men's gender self-esteem and sexual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9), 1233–1243.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Feinman, S. (1981). Why is cross-sex-role behavior more approved for girls than for boys? A status characteristic approach. *Sex roles*, *7*(3), 289–300.
- Finlay, B., & Walther, C. S. (2003). The relation of religious affiliation, service attendance, and other factors to homophobic attitudes among university student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4*(4), 370–393.
- Fisher, R. D., Derison, D., Polley III, C. F., Cadman, J., & Johnston, D. (1994). Religiousness, religious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s gays and lesbia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7), 614–630.
- Freedom to Marry (2021). *Global landscape of the freedom to marry*. Retrieved 1, 2022, from <https://www.freedomtomarryglobal.org>
- Fujioka, Y. (1999). Television portrayals and African–American stereotypes: Examination of television effects when direct

- contact is lack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1), 52–75.
- Gaasholt, Ø., & Togeby, L. (1995). Interethnic tolerance, educ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Evidence from Denmark. *Political Behavior*, 17(3), 265–285.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ivation process. In J. Bryant & D. Zillmann (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 17–40). Hillsdale, NJ: Erlbaum.
- Gross, L. (1991). Out of the mainstream: Sexual minorities and the mass media. *Journal of Homosexuality*, 21(1–2), 19–46.
- Hardman, K. L. (1997). Social workers' attitudes to lesbian client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7(4), 545–563.
- Harrison, B. F., & Michelson, M. R. (2015). God and marriage: The impact of religious identity priming on attitudes toward same-sex marriage. *Social Science Quarterly*, 96(5), 1411–1423.
- Harwood, J. (2017) Indirect and mediated intergroup contact. In Y. Y. Kim, & K. McKay-Semmler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2, pp. 912–920). New York: Wiley–Blackwell.
- Haslam, N., Bastian, B., Bain, P., & Kashima, Y. (2006). Psychological essentialism, implicit theori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1), 63–76.
- Haslam, N., & Levy, S. R. (2006). Essentialist beliefs about

- homosexuality: Structure and implications for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4), 471–485.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0).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113–127.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2). Are essentialist beliefs associated with prejud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1), 87–100.
- Hegarty, P., & Pratto, F. (2001). Sexual orientation beliefs: Their relationship to anti-gay attitudes and biological determinist argum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41(1), 121–135.
- Heinze, J. E., & Horn, S. S. (2009). Intergroup contact and beliefs about homosexual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7), 937–951.
- Helms, J. L., & Waters, A. M. (2016). Attitudes toward bisexual men and women. *Journal of Bisexuality*, 16(4), 454–467.
- Herek, G. M. (1984). Beyond "homophobia":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10(1–2), 1–21.
- Herek, G. M. (1988).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25(4), 451–477.
- Herek, G. M. (1995). The HIV epidemic and public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In M. P. Levine, P. Nardi, & J. Gagnon(Eds.), *A plague of our own: The impact of the HIV*

- epidemic on the lesbian and gay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rek, G. M. (1986). On heterosexual masculinity: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5), 563–577.
- Herek, G. M. (2000a). The psychology of sexual prejudi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19–22.
- Herek, G. M. (2000b). Sexual prejudice and gender: Do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differ? *Journal of Social Issues*, *56*(2), 251–266.
- Herek, G. M. (2002).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bisexual men and wom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ex Research*, *39*(4), 264–274.
- Herek, G. M., & Capitano, J. P. (1995). Black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ex Research*, *32*(2), 95–105.
- Herek, G. M., & Capitano, J. P. (1996). Some of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4), 412–424.
- Herek, G. M., & Glunt, E. K. (1991). AIDS-related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8*, 99–123.
- Herek, G. M., & Glunt, E. K. (1993). Interpersonal contact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Results from a

-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30(3), 239–244.
- Hewstone, M., Rubin, M., & Willis, H. (2002).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575–604.
- Hicks, G. R., & Lee, T. T. (2006). Public attitudes toward gays and lesbians: Trends and predictors. *Journal of Homosexuality*, 51(2), 57–77.
- Hilton, A. N., & Szymanski, D. M. (2014). Predictors of heterosexual siblings acceptance of their lesbian sister or gay brother.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8(2), 164–188.
- Hinrichs, D. W., & Rosenberg, P. J. (2002). Attitudes toward gay, lesbian, and bisexual persons among heterosexual liberal art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43(1), 61–84.
- Horton, D., & Richard Wohl, R. (1956). Mass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Observations on intimacy at a distance. *Psychiatry*, 19(3), 215–229.
- Hubbard, K., & Hegarty, P. (2014). Why is the history of heterosexuality essential? Beliefs about the history of sexual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sexual prejudice. *Journal of Homosexuality*, 61(4), 471–490.
- Huic, A., Jelic, M., & Kamenov, Z. (2018).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predict positive and negative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lesbian women and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65(12), 1631–1655.
- Hunsberger, B.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hostility toward homosexuals in

- non-Christian religious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6(1), 39–49.
- Hunsberger, B., Owusu, V., & Duck, R. (1999). Religion and prejudice in Ghana and Canada: Religious fundamentalism, right-w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9(3), 181–194.
- Iasenza, S. (1989). Some challenges of integrating sexual orientations into counselor training and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1), 73–76.
- ILGA. (2022). *Map sexual orientation laws*. Retrieved 1, 2022, from <https://ilga.org/maps-sexual-orientation-laws>.
- Islam, M. R., & Hewstone, M. (1993). Dimensions of contact as predictors of intergroup anxiety, perceived out-group variability, and out-group attitude: An integrativ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6), 700–710.
- Israel, T., & Mohr, J. J. (2004). Attitudes toward bisexual women and men: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Bisexuality*, 4(1–2), 117–134.
- Jayaratne, T. E., Ybarra, O., Sheldon, J. P., Brown, T. N., Feldbaum, M., Pfeffer, C. A., & Petty, E. M. (2006). White Americans' genetic lay theories of race differences and sexual orientation: Their relationship with prejudice toward Blacks, and gay men and lesbia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1), 77–94.
- Jonathan, E. (2008). The influenc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Christian orthodoxy on explicit and implicit measures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8(4), 316–329.
- Kaiser Family Foundation. (2001). *Inside-out: A report on the experiences of lesbians, gays, and bisexuals in America and the public's view on issues and politics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Retrieved from <http://www.kff.org>.
- Karafantis, D. M., & Levy, S. R. (2004). The role of children's lay theories about the malleability of human attributes in beliefs about and volunteering for disadvantaged groups. *Child Development*, 75(1), 236–250.
- Kite, M. E., & Whitley Jr, B. E. (2003). Do heterosexual women and men differ in their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analysis. In G. M. Herek (Ed.),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Understand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pp.39–61). Thousand Oaks, CA: Sage.
- Kirkpatrick, L. A. (1993). Fundamentalism, Christian orthodoxy, and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s predictors of discriminatory attitud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2(3), 256–268.
- LaMar, L., & Kite, M. (1998).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ex Research*, 35(2), 189–196.

- Laner, M. R., & Laner, R. H. (1979). Personal style or sexual preference: Why gay men are disliked.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9, 215–228.
- Laner, M. R., & Laner, R. H. (1980). Sexual preference or personal style: Why lesbians are disliked. *Journal of Homosexuality*, 5, 339–356.
- Lazar, A., & Hammer, J. H. (2018). Religiousness and anti-gay/lesbian attitudes: The mediating function of intratextual religious fundamentalism. *Psychology of Violence*, 8(6), 763–771.
- Lee, j., Shim, D. Y., Yang, M. O., & Kim, H. S. (2015). The effects of sexual behavior and self-esteem on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543–553.
- Levy, S. R., Stroessner, S. J., & Dweck, C. S. (1998). Stereotype formation and endorsement: The role of implicit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21–1436.
- Leyens, J. P., Paladino, P. M., Rodriguez-Torres, R., Vaes, J., Demoulin, S., Rodriguez-Perez, A., & Gaunt, R. (2000). The emotional side of prejudice: The attribution of secondary emotions to ingroups and out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2), 186–197.
- Liht, J., Conway, L. G., Savage, S., White, W., & O' Neill, K. A. (2011). Religious fundamentalism: An empirically derived

- construct and measurement scale.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3(3), 299–323.
- Loftus, J. (2001). America's liberalization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1973 to 1998.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5), 762–782.
- Lottes, I. L., & Kuriloff, P. J. (1992). The effects of gender, race, relig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sex role attitudes of college freshmen. *Adolescence*, 27(107), 675–688.
- MacDonald, A., Huggins, J., Young, S., & Swanson, R. (1973).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Preservation of sex morality or the double standar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1), 161.
- Matchinsky, D. J., & Iverson, T. G. (1996). Homophobia in heterosexual female undergraduates. *Journal of Homosexuality*, 31(4), 123–128.
- Martin, C. L., & Parker, S. (1995). Folk theories about sex and race differ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1), 45–57.
- Marty, M. E. & Appleby, S. R. (Eds.), (1995). *Fundamentalism comprehend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hr, J., & Rochlen, A. (1999). Measuring 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in lesbian, gay male, and heterosexual popul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53–369.
- Neuendorf, K. A., Armstrong, G. B., & Brentar, J. E. (1992). Minority images and racial attitudes as functions of viewing

measure specificity and gender.

- Ochs, R., (1996). Biphobia: It goes more than two ways. In B. A. Firestein (Ed.), *Bisexuality: The psychology and politics of an invisible minority* (pp. 217–23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Ochs, R., & Deihl, M. (1992). Moving beyond binary thinking. In W. J. Blumenfeld (Ed.), *Homophobia: How we all pay the price* (pp. 67–75). Boston: Beacon Press.
- Ohlander, J., Batalova, J., & Treas, J. (2005). Explaining educational influences on attitudes toward homosexual rel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34*(4), 781–799.
- Olson, L. R., Cadge, W., & Harrison, J. T. (2006). Religion and public opinion about same-sex marriage. *Social Science Quarterly, 87*(2), 340–360.
- Osgood, C. E. (1952).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meaning. *Psychological Bulletin, 49*(3), 197–237.
- Paul, J. P. (1996). Bisexuality: Exploring/exploding the boundaries. In R. C. Savin-Williams & K. M. Cohen (Eds.), *The lives of lesbians, gays, and bisexuals: Children to adults* (pp. 436–461).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Paul, J. P., & Nichols, M. (1988). "Biphobia" and the construction of a bisexual identity. In M. Sheroff & W. Scott (Eds.), *The sourcebook on lesbian/gay health care* (pp. 142–147). Washington, DC: National Lesbian and Gay Health Foundation.
- Pettigrew, T. F. (1997). Generalized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2), 173–185.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ickens, J. (2005). Attitudes and percep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in Health Care*, *4*(7), 43–76.
- Pinsof, D., & Haselton, M. G. (2017). The effect of the promiscuity stereotype on opposition to gay rights. *PLOS One*, *12*(7), 1–10.
- Poteat, V. P., & Anderson, C. J. (2012). Developmental changes in sexual prejudice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The effects of gender, race, and ideology on different patterns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8*(5), 1403–1415.
- Potter, W. J. (1986). Perceived reality and the cultivation hypothe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0*(2), 159–174.
- Prestwich, A., Kenworthy, J. B., Wilson, M., & Kwan-Tat, N. (2008). Differential relations between two types of contact and implicit and explicit racial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4), 575–588.
- Proulx, R. (1997). Homophobia in northeastern Brazil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34*(1), 47–56.

- Raja, S., & Stokes, J. (1998). Assessing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The modern homophobia scale. *Journal of Gay, Lesbian, and Bisexual Identity, 3*(2), 113-134.
- Revenson, T. A. (1989). Compassionate stereotyping of elderly patients by physicians: Revising the social contact hypothesis. *Psychology and Aging, 4*(2), 230-234.
- Rich, T. S. (2017). Religion and public perceptions of gays and lesbians in South Korea. *Journal of Homosexuality, 64*(5), 606-621.
- Ross, M. W., & Rosser, S. (1996). Measurement and correlates of internalized homophobia: A factor analysis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1), 15-21.
- Rothbart, M., & Taylor, M. (1992). Category labels and social reality: Do we view social categories as natural kinds? In G. Semin & K. Fiedler (Eds.), *Language, interaction and social cognition* (pp. 11-36). London: Sage.
- Rust, P. C. (1996). Monogamy and polyamory: Relationship issues for bisexuals. In B. A. Firestein (Ed.), *Bisexuality: The psychology and politics of an invisible minority* (pp. 127-148). Thousand Oaks, CA: Sage
- Sakalh, N., & Ugurlu, O. (2002). Effects of social contact with homosexuals on heterosexual Turkish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Journal of Homosexuality, 42*(1), 53-62.
- Scheitle, C., & Adamczyk, A. (2009). It takes two: the interplay of

- individual and group theology on social embeddednes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8(1), 16–29.
- Schiappa, E., Allen, M., & Gregg, P. B. (2007). Parasocial relationships and television: A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In R. Preiss, B. Gayle, N. Burrell, M. Allen, & J. Bryant (Eds.), *Mass media research: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pp. 301–31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1), 92–115.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6). Can one TV show make a difference? A Will & Grace and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Journal of Homosexuality*, 51(4), 15–37.
- Schulte, L. J., & Battle, J. (2004). The relative importance of ethnicity and religion in predicting attitudes towards gays and lesbians. *Journal of Homosexuality*, 47(2), 127–142.
- Shackelford, T. K., & Besser, A. (2007). Predicting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Insights from personality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5(2), 106–114.
- Shanahan, J. (2004). A return to cultural indicators. *Communications*, 29(3), 277–294.
- Sherkat, D., & Ellison, C. (1997). The cognitive structure of a moral crusade: conservative protestantism and opposition to pornography. *Social Forces*, 75(3), 957–980.
- Sherkat, D. E., Powell–Williams, M., Maddox, G., & De Vries, K. M.

- (2011). Religion, politics, and support for same-sex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1988-2008. *Social Science Research*, 40(1), 167-180.
- Shim, C., Zhang, Y. B., & Harwood, J. (2012). Direct and mediated intercultural contact: Koreans' attitudes toward US American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3), 169-188.
- Sigelman, L., & Welch, S. (1993). The contact hypothesis revisited: Black-white interaction and positive racial attitudes. *Social Forces*, 71(3), 781-795.
- Smith, K. (1971). Homophobia: A tentative personality profile. *Psychological Reports*, 29(3), 1091-1094.
- Span, S. A., & Vidal, L. A. (2003).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A preliminary study. *Psychological Reports*, 92(2), 565-572.
- Steffens, M. C., & Wagner, C. (2004). Attitudes toward lesbians, gay men, bisexual women, and bisexual men in Germany. *Journal of Sex Research*, 41(2), 137-149.
- Stockard, J., & Johnson, M. M. (1979). The social origins of male dominance. *Sex Roles*, 5(2), 199-218.
- Sullivan, M. K. (2013). *Sexual minorities: Discrimination, challenges and development in America*. New York, NY: The Haworth Press.
- Tan, A., Fujioka, Y., & Lucht, N. (1997). Native American stereotypes, TV portrayals, and personal contac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265–284.

Tajfel, H., & Turner, J. S.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Treas, J. (2002). How cohorts, education, and ideology shaped a new sexual revolution on American attitudes toward nonmarital sex, 1972–1998. *Sociological Perspectives*, 45(3), 267–283.

Tygart, C. E. (2000). Genetic causation attribution and public support of gay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3), 259–275.

VandenBos, G. R. (Ed.). (2007).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ezzali, L., Hewstone, M., Capozza, D., Giovannini, D., & Wölfer, R. (2014).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with extended and vicarious forms of indirect contact.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5(1), 314–389.

Weinberg, G. (1972). *Society and the healthy homosexual*. New York: St. Martin' s.

Weiner, B. (1995). *Judgments of responsibility: A foundation for a theory of social conduct*. New York: Guilford Press.

Weiner, B., Perry, R. P., & Magnusson, J. (1988).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reactions to stig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5), 738–748.

Whitley, B. E. (1990). The relationship of heterosexuals'

- attributions for the causes of homosexuality to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369–377.
- Whitley, B. E. (2001). Gender–role variables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Sex Roles*, 45(11), 691–721.
- Whitley, B. E., & Ægisdóttir, S. (2000). The gender belief system,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Sex Roles*, 42(11), 947–967.
- Whitley, B. E., & Lee, S. E. (2000). The relationship of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constructs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1), 144–170.
- Wibisono, S., Louis, W., & Jetten, J. (2019). The rol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in the intersection of national and religious identities. *Journal of Pacific Rim Psychology*, 13(e12), 1–12.
- Wilcox C & Norrander B. (2002). Of moods and morals: The dynamics of opinion on abortion and gay rights. In B Norrander, C Wilcox (Eds.),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pp. 121-147). Washington, D.C.: CQ Press.
- Williamson, W. P., & Ahmad, A. (2007). Survey research and Islamic fundamentalism: A question about validity. *Journal of Muslim Mental Health*, 2(2), 155–176.
- Winston, O. C. (1995). *Human relations in interracial housing: A study of the contact hypothesi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ittig, M. A., & Grant-Thompson, S. (1998). The utility of Allport's conditions of intergroup contact for predicting perceptions of improved racial attitudes and beliefs.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795–812.
- Woodford, M. R., Silverschanz, P., Swank, E., Scherrer, K. S., & Raiz, L. (2012). Predictors of heterosexual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LGBT people. *Journal of LGBT Youth*, *9*(4), 297–320.
- Worthen, M. G. (2012). Understanding college student attitudes toward LGBT individuals. *Sociological Focus*, *45*(4), 285–305.
- Worthen, M. G. (2013). An argument for separate analyses of attitude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men, bisexual women, MtF and FtM transgender individuals. *Sex Roles*, *68*(11), 703–723.
- Wyatt, T. J., Oswalt, S. B., White, C., & Peterson, F. L. (2008). Are tomorrow's teachers ready to deal with diverse students? Teacher candidates'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Teacher Education Quarterly*, *35*(2), 171–185.
- Yzerbyt, V. Y., & Rocher, S. (2002). Subjective essentialism and the emergence of stereotypes. In C. McGarty, V. Y. Yzerbyt, & R. Spears (Eds.), *Stereotypes as explanations: The formation of meaningful beliefs about social groups* (pp. 38–66).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zerbyt, V., Rocher, S., & Schadron, G. (1997). Stereotypes as

explanations: A subjective essentialistic view of group perception. In R. Spears, P. J. Oakes, N. Ellemers, & S. A. Haslam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ereotyping and group life* (pp. 20–50). Cambridge, UK: Blackwell.

## **ABSTRACT**

### **A study on attitudes and predictive variables of attitudes of non-sexual minorities toward lesbian, gay, and bisexual(LGB): Focusing on contact experience,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essentialist beliefs**

Hyun Ko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whether attitudes of non-sexual minorities toward lesbians, gays, and bisexuals (LGB) differ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and whether contact experiences,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essentialist beliefs are related to attitudes of non-sexual minorities toward LGB. To test this hypothesis, we conducted an online study of 308 non-sexual minorities aged from 19 to 39 year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responded to the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s scale (ATLGS), 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scale (ARBS), direct/indirect contact experience questions, multi-dimensional fundamentalism inventory (MDFI),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cale, and other demographic ques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attitudes of non-sexual minorities toward LGB were found to be different considering their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Specifically, participants showe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women sexual minorities compared to men sexual minorities and homosexuals compared to bisexuals. In addition, indirect contact experience—parasocial interaction, subscales of religious fundamentalism—worldly rejection versus worldly affirmation, and subscales of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discreteness, immutability, and universal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ttitudes of non-sexual minorities toward LGB. Specifically,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LGB can be explained by socially attractive and realistically perceived LGB characters, support secularity, belief that there is no fundamental psychological difference between homosexuals and heterosexuals, belief that sexual orientation is a category fixed in childhood, and belief that homosexuality i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universal.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found that attitudes of non-sexual minorities toward LGB vary depending on th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of LGB and examined various predictors related to these attitudes. We conclude this paper by discussing our findings, the study'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attitude of non-sexual minorities toward LGB, contact experience, religious fundamentalism,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 부록

## 부록 1. 연구 질문지

부록 1-1. 선별 문항

부록 1-2.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부록 1-3.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부록 1-4. 직접 접촉 경험 문항들

부록 1-5. 간접 접촉 경험 문항들

부록 1-6.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부록 1-7.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부록 1-8.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 부록 1. 연구 질문지

### ● 부록 1-1. 선별 문항

다음은 귀하께서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문항	예	아니오
1. 귀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이십니까?		
2. 귀하는 이성에게 성적·낭만적으로 끌림을 느끼는 이성애자이십니까?		
3. 귀하는 생물학적 성별과 스스로가 인지하는 사회적 성별이 일치하는 시스젠더이십니까?		

-예: 설문 지속, 아니오: 설문 중단 페이지

\*선별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아니오'에 응답하는 경우에는 설문 중단 페이지로 이동되며,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며 설문을 종료함.

### ● 부록 1-2.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동성애자에 대한 귀하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별도로 정해진 답은 없사오니,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레즈비언은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2. 여성의 동성애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용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R)					
3. 여성의 동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					
4. 사적이고 합의된 레즈비언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R)					
5. 여성의 동성애는 죄악이다.					
6. 레즈비언의 증가는 한국의 도덕성 저하를 의미한다.					
7. 여성의 동성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는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R)					
8. 여성의 동성애는 우리의 많은 기본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9. 여성의 동성애는 열등한 형태의 성욕이다.					
10. 여성의 동성애는 질병이다.					
11. 게이는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12. 남성의 동성애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용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R)					
13. 남성의 동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					
14. 사적이고 합의된 게이들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R)					

15. 남성의 동성애는 죄악이다.					
16. 게이와 레즈비언의 증가는 한국의 도덕성 저하를 의미한다.					
17. 남성의 동성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는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R)					
18. 남성의 동성애는 우리의 많은 기본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19. 남성의 동성애는 열등한 형태의 성욕이다.					
20. 남성의 동성애는 질병이다.					

- 동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 1, 2, 3, 4, 5, 6, 7, 8, 9, 10

- 동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은 역문항

● 부록 1-3.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양성애자에 대한 귀하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별도로 정해진 답은 없사오니,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정체화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					

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2.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성적 지향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3. 양성애자 여성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4.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5. 레즈비언들은 양성애자 여성들보다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덜 혼란스러워한다.					
6. 동성애,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양성애도 여성에게 안정적인 성적 지향이다. <b>(R)</b>					
7. 여성의 양성애는 왜곡된 상태가 아니다. <b>(R)</b>					
8. 내가 아는 한 여성의 양성애는 부자연스럽다.					
9. 여성의 양성애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쇠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 여성의 양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					
11. 여성의 양성애는 비도덕적이다.					
12. 여성의 양성애는 질병이다.					
13.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정체화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직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14.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부르는 대부					

분의 남성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성적 지향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15. 양성애자 남성들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16.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17. 게이들은 양성애자 남성들보다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덜 혼란스러워한다.					
18. 동성애,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양성애도 남성에게 안정적인 성적 지향이다. (R)					
19. 남성의 양성애는 왜곡된 상태가 아니다. (R)					
20. 내가 아는 한 남성의 양성애는 부자연스럽다.					
21. 남성의 양성애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의 쇠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남성의 양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					
23. 남성의 양성애는 비도덕적이다.					
24. 남성의 양성애는 질병이다.					

-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R)은 역문항

● 부록 1-4. 직접 접촉 척도

귀하께서 LGB,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개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별도로 정해진 답은 없사오니,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평소 경험과 일치하는 응답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1. 과거부터 현재까지 귀하께서 LGB 사람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으셨나요?

① 전혀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2. 과거부터 현재까지 귀하께서 LGB 사람들과 공부나 일을 함께 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나요?

① 전혀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3. 과거부터 현재까지 귀하께서 LGB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시청하는 등의 사교적인 일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나요?

① 전혀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4. 귀하께서는 LGB 사람들과 보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① 전혀 소중하지 않다	② 조금 소중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소중하다	⑤ 매우 소중하다	⑥ 해당 사항 없음

5. 귀하께 LGB 사람들과의 연락이 얼마나 즐거웠나요?

① 전혀 즐겁지 않았다	② 조금 즐겁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즐거웠다	⑤ 매우 즐거웠다	⑥ 해당 사항 없음

6. 귀하께서는 얼마나 LGB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접촉하였다고 느끼시나요?

①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다	② 조금 우호적이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우호적이었 다	⑤ 매우 우호적이었 다	⑥ 해당 사항 없음

7. 귀하께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LGB 친구 및 지인이 몇 명 있으신가요?

0명	←-- 50명 --→	100명

-접촉의 빈도: 1, 2, 3

-접촉의 질: 4, 5, 6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7

● 부록 1-5. 간접 접촉 척도

귀하께서 LGB 콘텐츠,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콘텐츠를 시청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보통 얼마나 오랫동안 인터넷, 텔레비전, DVD와 같은 미디어 채널을 통해 LGB 콘텐츠를 시청하십니까?(시간 추정치 기입)

2. 아래의 LGB 콘텐츠 목록 중 귀하께서 시청하셨던 콘텐츠에 체크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1)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압텔라티프 케시시 감독, 2013
(2) 글리, 미국 Fox 방영, 2009-2015
(3) 델마와 루이스, 리들리 스콧 감독, 1991
(4) 뜨거운 것이 좋아, 권철인 감독, 2007
(5) 마인, tvN 방영, 2021
(6) 모던 패밀리, 미국 ABC 방영, 2009-2020
(7) 문라이트, 배리 젠킨스 감독, 2016
(8) 별새, 김보라 감독, 2018
(9) 보헤미안 랩소디, 브라이언 싱어 감독, 2018
(10)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변성현 감독, 2016
(11) 브로크백 마운틴, 이안 감독, 2005
(12)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민규동 감독, 2008
(13) 쌍화점, 유하 감독, 2008
(14) 아가씨, 박찬욱 감독, 2016
(15) 엘리트들, 넷플릭스 방영, 2018-2021
(16)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김태용&민규동 감독, 1999
(17) 연애소설, 이한 감독, 2002
(18)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넷플릭스 방영, 2013-2019
(19)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넷플릭스 방영, 2019-2021
(20)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 2005
(21) 월 플라워,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 2012
(22) 윤희에게, 임대형 감독, 2019
(23) 이미테이션 게임, 모튼 틸덤 감독, 2014



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6. 나는 해당 등장인물과 같은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					
7. 나는 해당 등장인물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8. 해당 등장인물은 나에게 실제 인물처럼 느껴진다.					

-미디어 시청 빈도 : 1

-미디어 다양성: 2

-사회적 매력: 3, 4, 5

-인지된 사실성: 6, 7, 8

● 부록 1-6.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 귀하께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①②③⑤: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 A에 응답

-④: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 B에 응답

■ 귀하께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별도로 정해진 답은 없사오니,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A)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	동의하지	보통이다	동의한다

	하지 않는 다	않는 다			한다
1. 내 삶의 모든 측면이 종교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R)					
2. 종교는 공적인 문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R)					
3.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행동을 위한 가장 좋은 지침이다. (R)					
4.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5.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신의 뜻에 복종하는 이들이 존경스럽다.					
6. 종교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R)					
7. 사회가 변함에 따라 종교도 변해야 한다. (R)					
8. 종교는 현대 세계의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R)					
9. 진정한 종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10. 종교 단체에서 여성들은 어떤 중요한 직책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R)					
11. 이상한 생각에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종교를 받아들일 것이다.					
12.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13. 나에게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하다.					
14. 내가 투표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안은					

종교적인 것이다.					
15. 모든 예술은 신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여야 한다.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B)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내 삶의 모든 측면이 종교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R)					
2. 종교는 공적인 문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R)					
3.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행동을 위한 가장 좋은 지침이다. (R)					
4.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5.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신의 뜻에 복종하는 이들이 존경스럽다.					
6. 종교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R)					
7. 사회가 변함에 따라 종교도 변해야 한다. (R)					
8. 종교는 현대 세계의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R)					
9. 진정한 종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10. 종교 단체에서 여성들은 어떤 중요한 직책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R)					

11. 이상한 생각에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받아들일 것이다.					
12. 종교를 믿는 이들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13. 나에게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하다.					
14. 내가 투표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안은 종교적인 것이다.					
15. 모든 예술은 신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여야 한다.					

- 외부 대 내부 권한: 1, 2, 3, 4, 5
- 고정 대 가변 종교: 6, 7, 8, 9, 10
- 세속적 거부 대 지지: 11, 12, 13, 14, 15

(R)은 역문항

● 부록 1-7.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귀하께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별도로 정해진 답은 없사오니,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성적 지향은 명확하고 뚜렷한 경계가					

있는 범주다. 사람들은 동성애자거나 이성애자다.					
2. 동성애자들은 필연적이거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없다면 동성애자가 될 수 없다.					
3.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R)					
4. 양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야 한다.					
5. 누가 동성애자인지 혹은 이성애자인지 아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 준다.					
6. 성적 지향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7. 한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혹은 이성애자인지는 어린 시절에 거의 정해진다.					
8.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없다.					
9. 동성애와 이성애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다.					
10.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을 바꾸도록 도울 수 있다. (R)					
11. 동성애자들은 아마도 특정한 문화권에만 존재할 것이다. (R)					
12. 동성애자들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 동안 쪽 존재해 왔을 것이다.					
13. 모든 문화권에는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14. 동성애자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다.					

15. 동성애자가 대거 등장한 것은 지난 세기에 불과하다. (R)					
--------------------------------------	--	--	--	--	--

-분별성: 1, 2, 3, 4, 5

-불변성: 6, 7, 8, 9, 10

-보편성: 11, 12, 13, 14, 15

(R)은 역문항

● 부록 1-8.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만 ( )세

2. 귀하의 생물학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 귀하의 사회적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4. 귀하의 성적 지향은 무엇입니까?

① 동성애 ② 양성애 ③ 이성애 ④ 무성애 ⑤ 기타( )

5.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7.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8.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7. 귀하의 가족 구성원 전원의 한 달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50만원 이하 ② 15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③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④ 351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⑤ 451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⑥ 551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⑦ 651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⑧ 751만원 이상 850만원 이하 ⑨ 851만원 이상 950만원 이하 ⑩ 951만원 이상 ⑪ 모름

8.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 )명

9. 아래 사다리 위에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위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사다리 칸에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가장 존경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위치할 것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사다리 칸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교육을 적게 받았으며,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위치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귀하께서는 본인이 아래 사다리 칸 중 어느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

